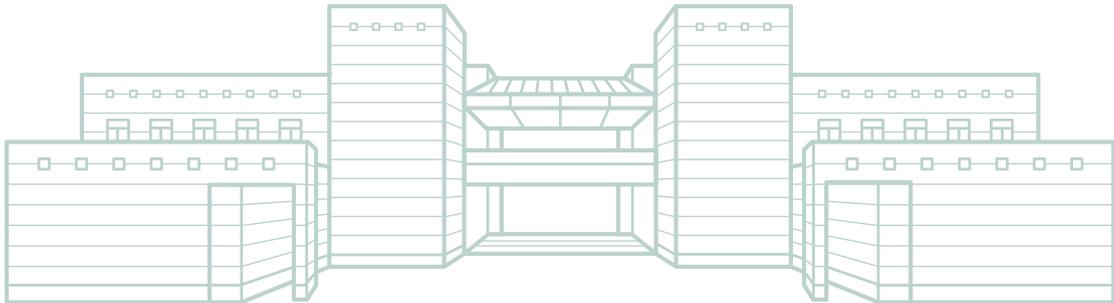




博物館紀要

Vol. 33



Contents

특별전 1	민속복식 제36회 출토복식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 - 민속복식 제35회 학술발표회 / 진주류씨 류정의 처 경주이씨 무덤 출토 복식	08 11
특별전 2	고고미술 제7회 특별전 [경기도 산성과 백제] - 학술대회 / 경기도 백제산성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 교육체험행사 1 / 트리아트 체험존 '나도 고고학자!' - 교육체험행사 2 / 백제 토기만들기 '백제 토기의 숨은 멋 찾기' - 교육체험행사 3 / 발굴현장 '증강현실' 체험	20 23 37 38 39
특별전 3	구글 운영 예술전시 플랫폼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	40
학술옹역	복식유물 보존처리	44
전통문화체험행사	단오부채 만들기 [나만의 부채로 시원한 여름나기]	45
2017 DKU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여기는 박물관, 나는 큐레이터]	47

10



22



博物館紀要是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에서 년 1회 발행하는 연속 간행물로 33호는 2017년도 활동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37



49



도서 발간	도록 [진주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이씨 출토 복식] [경기도 산성과 백제] 2017 올해의 우수 학술도서 선정 [어진에 옷을 입히다] 학술지 [한국복식 37호] [한국복식 38호] 연보 [박물관기요 32]	49 49 49 50 50
유물	기증 [이난숙 선생 / 귀주머니] [석태홍 선생 / 레코더와 테이프] [유효선 교수 / 근대 복식 유물] [김정숙 여사 / 싱거미싱] [신의식·김영현 선생 / 중국경극복식복원품] [천안 역사학과 / 고서 및 탐본자료] 대여/열람	51 51 52 53 53 54 60
시설대관	대관	63
2017 관람	주요 관람 현황	65
일반현황	조직/시설 주요연혁 사진으로 보는 박물관 50년 : 1967~2017	70 71 74
부록	유물기증안내 한국복식 원고모집	79 81

68





특별전 -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웃



단오부채 만들기



백제 토기만들기



학술대회 - 민속복식 제35회 학술발표회



학술대회 - 경기도 백제산성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특별전 - 경기도 산성과 백제



주귀홍 주한중국대사 방문



70주년 기념관 조감

2017년도
석주선기념박물관 활동

민속복식 제36회
출토복식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



개막식 전시안내

기간 | 2017.05.19(금) ~ 06.22(목) (기간 중 일요일 휴관)

장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4전시실

협찬 | 동명실크·나래술[직물 제직] / 박선영 전통한복연구실[유물 복원]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 제36회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진주류씨(晋州柳氏) 류정(柳縉)의 처 경주이씨 무덤 출토 복식-전을 개최하였다. 전시 유물은 18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이다. 2003년 10월 29일, 용인시(龍仁市) 처인구(處仁區) 모현면(慕賢面) 일산리(日山里) 27번지에 소재한 진주류씨(晋州柳氏) 참판공(參判公) 류정(縉 : 1684-1753)과 후 배위 정부인(貞夫人) 경주이씨(慶州李氏)의 합장묘(合葬墓)를 이장(移葬)하는 작업 중에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참판공의 관(棺)에서 천금 1점, 명정 조각, 구의 조각 등 총 3점이 수습되었으며 경주이씨의 관에서는 장옷 2점, 곁마기와 장저고리를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치마 7점, 너른바지 1점, 토수 1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으로 총 47점이 출토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경주이씨 유물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시 구성은 프롤로그에서 류순정 9대손 류정 집안의 가계를 소개하고 류순정, 류수의 초상화와 족보 등을



포스터

전시하여 경주이씨의 남편인 진주류씨 집안을 소개하였다. 이어 복식 유물을 5zone으로 구성하여, 저고리, 장저고리, 치마, 장옷, 처네 등 4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고리 복원품 착장을 통하여 조선 시대 저고리 변천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직물회사[동명실크]의 협찬을 받아 4종의 직물을 제직하였으며 복원품은 박선영 전통 한복 연구실 회원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약 2,000 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직물 제직, 복원품 제작 등 산학 간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전시가 되었다. 기증 받은 문중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기증 문화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18세기 양반 여성의 복식을 전시하여 한국 복식의 새 학설을 조명함으로써 단국대학교가 우리 전통문화를 고취시키는데 앞장서는 학문기관임을 각인시킴으로써 일반인과 학계에 한국의 전통 문화 지킴이로서의 '단국대학교'의 이미지 증대에 기여하였다.



화려한 무늬들로 이루어진 18세기 여인의 옷들



식물무늬, 동물무늬
보배무늬, 기하무늬 등
14개의 단위 무늬가 조합된
저고리와 무늬.



민속복식 제35회 학술발표회

진주류씨 류정의 처 경주이씨 무덤 출토 복식

주 제 | 유순정 9대손 류정의 배위 경주이씨 여묘 출토 복식을 통한 18세기 양반 여성의 의생활 조명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14시 ~ 17시
장 소 | 단국대학교 국제관 101호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 제36회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 전시의 연계 행사로 ‘류순정 9대손 류정의 배위 경주이씨 여묘 출토 복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발표회를 통해 18세기 양반 여성의 의생활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자와 발표내용

구분	내용	발표	토론
개회	축사	박경식_석주선기념박물관	-
주제 1	진주류씨 류정의 배위 경주이씨 복식에 관한 연구	이명은_석주선기념박물관	송미경_서울여자대학교
주제 2	『사소절』의 복식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1 : 「士典」을 중심으로	한미경_경기대학교	이은주_안동대학교
주제 3	류정 부인 경주이씨 묘 출토 복식의 직물무늬	이은진_경상대학교	정미숙_경기도박물관
시연	경주이씨 복식 착장 시연		



진주 류씨 류정의 배위 경주 이씨 복식에 관한 연구

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3년 10월 29일, 용인시(龍仁市) 처인구(處仁區) 모현면(慕賢面) 일산리(日山里)27번지에 소재한 진주 류씨(晉州 柳氏) 참판공(參判公) 류정(凝 : 1684-1753)과 후 배위 정부인(貞夫人) 경주 이씨(慶州 李氏)의 합장묘(合葬墓)를 이장(移葬)하는 작업 중에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류정은 문성공(文成公) 류순정(柳順汀 : 1459~1512)의 후손으로 1) 영조 15년(1739)에 형조참판(刑曹參判 : 종2품)을 지낸 인물이다. 참판공의 후손들은 흩어져 있던 조상의 묘를 새로운 문중 묘역으로 합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단국대학교



경주 이씨 관에서 유물 수습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참판공 류정(이후 참판공으로 칭함)은 1684년 아버지 류진운(柳振運)과 어머니 전주이씨(全州李氏)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영조 15년(1739)에 형조참판(刑曹參判 : 종2품)을 지낸 인물이다. 참판공은 반남박씨(潘南朴氏)와 혼인하였으나 부인이 일찍 사망하여 경주 이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1753년 5월 7일 69세의 나이로, 경주 이씨보다 일찍 사망하여 월계산(月鷄山) 묘역에 모셔져 백부(伯父) 류창운의 우측에 경좌(庚坐 : 동북동 사이를 향함)하여 안치되었다. 후 배위 경주 이씨는 생몰년은 불확실하나 참판공 보다 몇 년 후 4월 4일에 사망하자 참판공의 묘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경주 이씨와 합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17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생존하였을 것이다.

출토된 유물은 참판공의 관(棺)에서 천금 1점, 명정 조각, 구의 조각 등 총 3점이 수습되었으며 경주 이씨의 관에서는 장옷 2점, 결마기와 장저고리를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치마 7점, 너른바지 1점, 토수 1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으로 총 47점이 확인되었다.

유물의 종류는 장옷 2점, 결마기 1점, 회장저고

리 6점, 장저고리 5점을 포함한 저고리류 32점, 토수 1점, 너른바지 1점, 치마 7점, 천의 1점, 이불 2점, 솜포 1점이다. 이들 유물은 식물성 섬유질이 모두 퇴화되어 동물성 섬유의 복식만 남아있는 사례이다.

장옷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 외출복이다. 총 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점은 열은 갈색으로 1점은 짙은 갈색으로 갈변된 상태이다. 2점의 크기는 각 부분이 0.5~2cm의 편차를 보여 크기가 거의 같은 편이다. 모두 누비옷으로 안에 솜이 들어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형태는 목판깃, 일자형 배래선, 소매끝의 거들지, 겨드랑이 아래의 삼각무와 넓은 사다리꼴무 등으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장옷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옷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안에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해지는 구성이다.

결마기[肩莫只]는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의례용 저고리의 하나이다. 당의(唐衣)보다는 아래 급의 옷으로 소매에 당의처럼 흰색 거들지가 달려있다. 경주 이씨의 유물 중 결마기는 1점이다. 결마기라는 옷이 조선 후기에는 소매 끝에 거들지가 달린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저고리는 30여 년간의 출토 복식에서 수많은 저고리 중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계에 소개된 것으로 2011년에 소개된 해평윤씨의 저고리 유물 30여점 중 거들지 달린 저고리는 단 1점이 있다. 이 때는 결마기라는 확실한 명칭보다는 가능성만 제시되었다. 이후 수원 이의동 안동김씨 여성 묘에서 출토된 수원박물관 소장 저고리 중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를 결마기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석주선박물관 소장품 중 양천허씨(1566~1626)의 저고리, 탐릉군 묘 출토 저고리(1700년대) 등에 거들지 달린 저고리가 있다.

회장저고리는 여자의 기본형 저고리에서 깃, 끝



밀창군 배위 복천오씨 영정 부분. 개인소장

둥, 무, 고름 부분을 목판의 색상과 달리한 것을 말한다. 경주 이씨의 회장저고리의 특이한 사항은 장식하지 않은 일반 저고리에 비하여 옷길리와 옷품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누비 저고리는 경주 이씨 유물 중 모두 7점이다. 이 가운데 1점은 회장저고리 형태이며 1점은 누비옷을 짓기 위해 각 부분을 누벼 놓은 반제품 상태이다. 이들 유물은 누벼준 후 도련을 별단 처리하여 마무리한 것[편의상 A형이라 함]과 옷 형태를 만든 후 누벼준 것[편의상 B형이라 함]으로 분류된다. 누비장저고리와 저고리에 비하여 길이가 길어 장저고리로 칭하고자 한다.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길쭉 모양이 여성 저고리의 특징인 목판당코깃 형태이고 고름은 진갈색으로 별색을 주었으며 소매는 끝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새롭게 발견된 1700년대 여성의 새로운 복식 유형이다. 장옷과 같이 옷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안에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저고리 14점은 기본 모양은 회장저고리와 같으면서 겨드랑이에는 무가 없는 것

이 다른 점이다. 시각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어 소박해 보이지만 걸감이 고급 옷감이고 소매 끝에는 끝동을 별단으로 달아주었다.

경주 이씨 유물 중 치마는 모두 7점이다. 이 가운데 완형 상태의 치마는 1점이고 나머지는 허리 말기와 주름이 없는 상태이다. 너른바지는 주로 상류층에서 정장할 때 밀받침 옷으로 단속곳 위에 입어 하체를 풍만하게 보이게 한 속바지의 일종이다.

경주 이씨의 유물 중에는 추운 날 방 안에서 간편한 이불 대용으로 사용한 천의 1점과 손목 부위 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우는 토시 1쌍이 있다. 천의는 한자어 '薦衣' 'ㄸ薦衣'로 기록되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복식 용어로 속음으로 '치네'라고도 불리었으며 유물을 통해본 천의의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있다. 용도가 다양하여 이불 대용의 간편 천의, 머리천의, 포대기용 천의의 3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경주 이씨 천의의 형태는 직사각형 몸판의 좌우에 사다리꼴형 무가 달리고 상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에 작은 주름이 세 가닥씩 잡혀있어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고 윗부분에 저고리 깃과 같은 목판깃이 달려 있다. 깃에 동정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누비 간격 등으로 볼 때 원래는 솜옷으로 추정된다. 경주 이씨의 천의가 목판깃 형태인 것을 볼 때 시대적으로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2

『사소절』의 복식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1 : 「士典」을 중심으로

한미경
경기대학교



이덕무(李德懋)는 '사가시인(四家詩人)' 중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까지 이름을 날린 조선 후기 북학과 실학자이다. 당시 북학과 실학자들이 자연에 대한 신지식과 이용후생적 사고 등에 집중하면서 예와 관련된 저술을 많이 하지 않은 반면 이덕무는 예와 관련하여 『사소절(士小節)』과 『예기억(禮記臆)』을 저술하였다. 그중 『사소절』은 이덕무가 34세에 지은 것으로 선비와 부녀자 및 어린아이들의 작은 예절 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선비와 부녀자 및 어린아이들의 성품과 행동, 의복과 음식(服食), 사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와 관련한 소소한 작은 예절을

기록한 저술이며, '소학(小學)'적인 이덕무의 생각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예절상 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사소절』은 「사전」, 「부의」, 「동규」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청장관사소절』은 5권 2책으로 제1책 권1-2와 제2책 권3은 「사전」, 제2책 권4는 「부의」와 권5는 「동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자본 『사소절』은 8권 2책으로 권1-5는 「사전」, 권6-7은 「부의」 그리고 권8은 「동규」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관사소절』과 최종환의 활자본 『사소절』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소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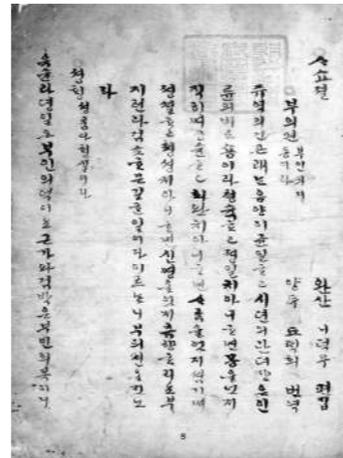
『청장관사소절』			활자본 『사소절』							
권	책	구성	책	권	구성	세부구성				
1	1	士典	1	1	士典	1	性行	言語	服食	
2				2		勤止	勤愼			
3				3		敎習	人倫			
4				4		交接				
5	2	婦儀	2	5	童規	5	御下	事物		
				6		1	性行	言語	服食	勤止
				7		2	敎育	人倫	祭祀	事物
				8		童規	勤止	敎習	敬長	事物



『靑莊館士小節』 古貴 1570-12



『士小節』 古貴 17-2-2



『士小節』 古朝 25



『懸吐士小節』 우촌 古 154-4



『士小節之節』 한古朝 17-35

『사소절(士小節)』의 「사전(士典)」을 대상으로 저술목적과 구성 및 현전 상황에 대하여 살피고,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덕무는 『사소절』 저술의 목적으로 작은 예절에 대하여 자신과 부인이 지키고 경계하며, 어린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따라서 전체 「사전」을 통하여 ‘성행’에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생활상의 크고

작은 예절에 대한 생각과 도리 등을 기술하고 있다. 내용 조사 결과 크게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에 맞는 의복 예절, 선비로서의 의복을 통한 격식과 의관정제의 중요성, 의복에 대한 마음가짐, 의복의 시대상과 유행 등과 같은 부분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사를 통해 이덕무는 의복과 장식에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예의로서의 의복의 격식과 장소와 때에 맞는 작은 예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체 「사전」 581장 중 39장(전체 대비 6.71%)에서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세부 구성 총 10개 부분 중 ‘복식(服食)’과 ‘동지(動止)’ 부분에서 각각 18장(전체대비 46.15%)과 13장(전체대비 33.33%)으로 가장 많은 복식관련 기록이 조사되었다. 또한 의복과 장신 관련 전체 복식관련 기록 중 의복이 24장(61.53%)이고 장신은 7장(17.94%)으로 이덕무는 의복관련 작은 예절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 중 복식 용어는 총 17장에서 17개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전 또는 인물의 일화 등을 인용한 곳은 5장으로 2개의 경전과 4명의 인물의 일화나 시구절 등을 인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덕무는 예절을 기술함에 있어 근거 제시 또는 실제 상황의 사례 제시하여 설득력에 힘을 신기 위한 방법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덕무의 『사소절』 「사전」은 기본적으로 선비로서 자신의 수신을 위하여 지은 작은 예절

서로서 복식관련 기록의 조사를 통하여 의복과 장신에 대하여 크게 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선비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체면을 위한 예절, 장소나 때를 가리는 격식 그리고 나아가 화려하거나 비싼 의복보다는 의관의 정제라는 의복 예절을 소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은 예절로 중히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덕무의 『사소절』 「사전」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내용 조사와 수치적 분석 및 용어와 인용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사소절』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더불어 복식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 및 「동규」의 세 편 중 선비로서 지켜야할 작은 예절을 다루고 있는 「사전」을 대상으로 복식(服飾)관련 기록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에 이덕무의 복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작은 예절 분석을 위하여 「부의」와 「동규」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사소절』 전체 복식 관련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후일을 기약한다.

류정(柳緝) 부인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의 직물 무늬

이은진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진주 류씨(晉州 柳氏) 참판공 정(緝 : 1684-1753년)의 정부인인 경주 이씨 묘에서 복식류 47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32점의 유물에 무늬 있는 직물이 사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 출토복식에 사용된 옷감에 사용된 무늬의 종류는 제작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무늬를 파악할 수 없는 5건을 제외하면 모두 28종이다.

무늬 있는 직물이 사용된 복식의 부분을 각 1건으로 계산하되 한 유물에 두 군데 이상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을 경우는 1건으로 하여 문직물이 사용된 수를 조사해보면 경주 이씨 복식류에 사용된 문직물은 모두 72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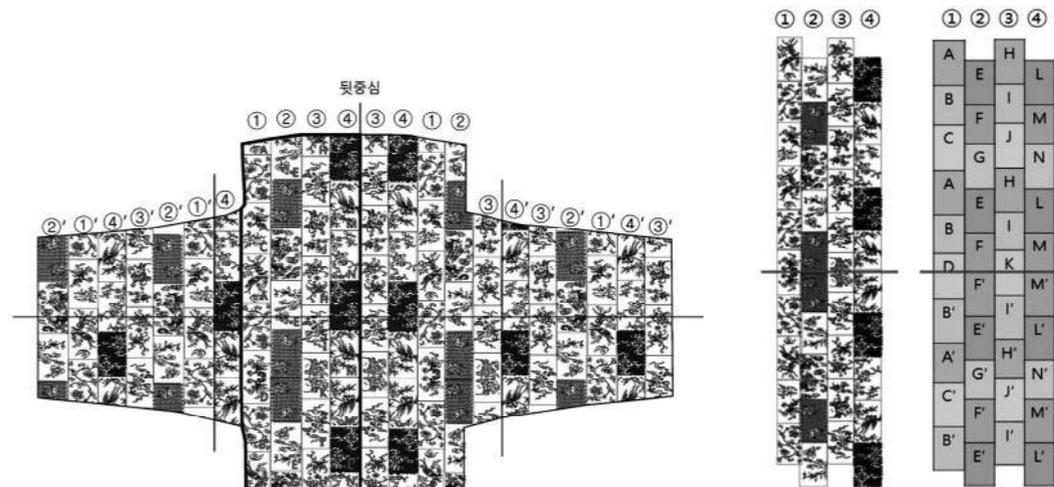
경주 이씨 묘 직물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무늬가 나타나는데 꽃무늬와 과일무늬의 비중이 높다. 또한 한 종류로 구성된 단독무늬의 사용보다는 두 종류 이상으로 복합구성된 사례가 많다. 경주 이씨 묘 출토 복식에 나타나는 직물무늬를 주무늬를 기준으로 식물무늬(꽃무늬, 과일무늬, 과일과 꽃무늬), 동물무늬(상상동물무늬), 자연산수무늬(구름무늬, 파도무늬), 기물무늬(보배무늬)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무늬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꽃무늬는 총 32건으로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옷감 무늬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꽃무늬 중에서도 연꽃무늬와 모란무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은꽃무늬 7건, 매화무늬 6건, 사계절꽃무늬 2건, 큰꽃무늬 1건 등이다. 꽃무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종류는 연꽃넙쿨무늬로 7건이 나타났다. 모란무늬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연꽃이나 새 등 다른 무늬와 함께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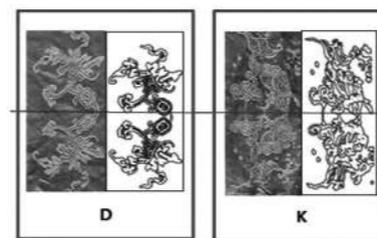
과실무늬는 총 27건(과실과 꽃무늬, 꽃·과실과 보배무늬 포함)으로 복숭아, 석류, 불수감, 여지, 포도 등의 매우 다양한 과실이 활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과실무늬는 원주 원씨 원익손(元翼孫 : 1722-1783년)의 정부인 창녕 조씨(1721-1742년) 묘에서 출토된 과실무늬와 유사한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는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창녕 조씨 묘에서 출토된 직물 무늬와 흡사하다.

동물무늬는 총 5건으로, 길고름에 활용되어 전체 무늬를 확인 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서 한 쌍의 용이 원형을 이루고 중앙에 작은 원형의 문자를 넣어 주무늬를 구성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보조무늬로 구름무늬나 보배무늬를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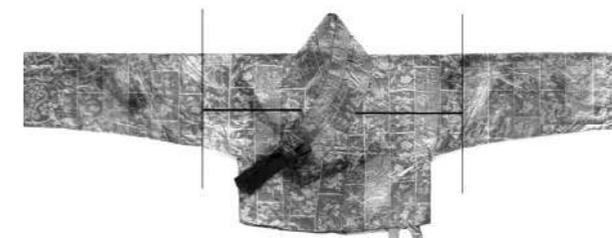


저고리(No. B11283)의 무늬 배열

저고리(No. B11283)의 무늬의 규칙



상하 대칭을 이루는 D와 K



저고리(No. B11283)상 무늬의 대칭축(가로선)

자연산수무늬는 총 1건이다. 구름·물결과 보배무늬가 나타났다.

기물무늬는 총 2건이다. 동·식물·자연산수와 보배무늬, 꽃과 보배무늬가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의 출토 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무늬로 식물무늬(연꽃, 모란, 석류, 대나무), 동물무늬(용, 봉황, 새), 자연산수무늬(괴석, 파도, 물결, 구름), 보배무늬(화주, 파초선, 호로, 어고, 영지, 방승, 애엽, 서각 등), 기하무늬(귀갑무늬, 마름무늬) 등이 조합된 열 네 개의 단위무늬를 하프 드롭(Half Drop) 형태로 배열한 무늬가 나타났다.

한편 보조무늬로는 까치, 나비, 다람쥐, 물고기

등의 동물무늬, 수(壽)자와 같은 문자무늬, 구름 등의 자연산수무늬, 보배무늬와 같은 기물무늬, 격자무늬, 귀갑무늬, 마름무늬, 창살무늬, 태극무늬 등의 기하무늬도 활용되었다.

경주 이씨 묘 출토 옷감의 무늬는 원익손의 부인 창녕 조씨(1721-1742년) 유물과 흡사하다. 또한 의원군 부인 안동 권씨(1664-1722년), 밀창군(1677-1746년), 남오성(1643-1712년) 묘와 유사한 유물이 나타난다. 더불어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문단의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문직물의 비율이 높은 경주 이씨의 유물은 직물 무늬를 기준으로 볼 때 18세기 초·중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미술 제7회
특별전

경기도 산성과 백제

02



2017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전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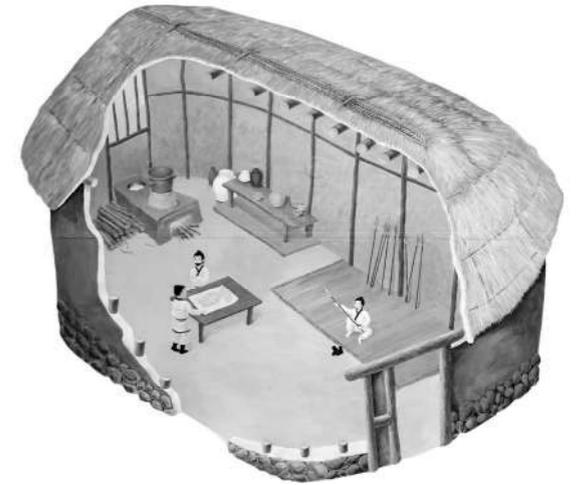
개막식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기간 | 2017년 9월 15일(금) ~ 11월 17일(금)
장소 | 고고미술관 제2전시실
후원 | 경기도,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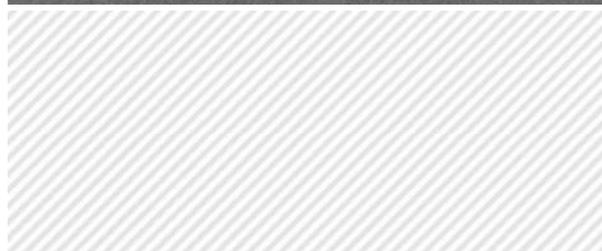
단국대학교 개교 70주년, 박물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고고미술 분야 특별전 '경기도 산성과 백제'는 미지의 땅에 정착하여 백제를 건국하였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켰던 한성도읍기 백제사람들의 도전과 이에 대한 결과를 구현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한성 백제기에 축조된 경기도의 이천 설봉산성 및 설성산성을 비롯해 안성 망이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의 관방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4세기 후반에 이르러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했던 백제의 모습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다. 특별전은 2017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의 지원이 있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한양대학교박물관 등의 협조가 있었으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미술교육전공)와 도예과, 한빛토목설계공사의 여러 선생님들이 전시



포스터

기획과 체험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석주선기념박물관이 문화유산 향유의 지역 거점으로 변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학술대회

경기도 백제산성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주 제 |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공 동 | 한국문화사학회

일 시 | 2017년 9월 15일(금) 11시 ~ 17시

장 소 | 단국대학교 국제관 102호

후 원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한백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산성과 백제’ 특별전의 연계 행사로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한백문화재연구원 등 발굴전문기관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견된 백제산성 유적들의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조발표(박경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술대회 참가자

발표자와 발표내용

구분	내용	발표	토론
기조강연	경기도 백제산성 유적 발굴의 성과와 의의	박경식_석주선기념박물관	-
주제1	경기도의 백제산성과 교통로	서영일_한백문화재연구원	박중균_한성백제박물관
주제2	백제 한성기 도성방어 체계와 경기지역 산성	신희권_서울시립대학교	양정석_수원대학교
주제3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김호준_충북문화재연구원	김병희_한성문화재연구원
주제4	백제 산성 출토 백제토기의 특징과 제작방법	방유리_한백문화재연구원	한준영_경기도박물관
주제5	4~5세기 삼국의 각축 - 백제의 남진과 신라의 북진	전덕재_단국대학교	김재홍_국민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차용걸_충북대학교	



주제 1

경기도의 백제산성과 교통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



일반적으로 고대국가에서 교통로의 발달은 상인 집단과 군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육로의 개척과 발달은 무엇보다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 삼국간의 치열한 항쟁은 4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을 시작으로 격화되어 6세기 중반 이후 삼국 간의 상호 항쟁에 이르기까지 국운을 걸고 전개되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 지원과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통로의 정비와 활용이 필수적이었다.

백제 한성의 입지와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한성에서 방사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교통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 백제시대에 그 모든 교통로가 동일한 비중이나 성격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각의 교통로는 국가의 발전 전략에 따라 개척과 정비, 교통시설의 설치, 유지와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런데 교통로의 체계적 정비와 동시에 산성의 축조와 활용도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산성의 축조와 운영은 왕도에서 해당 산성에 이르는 교통로의 정비 없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초기 전투기록에 등장하는 성책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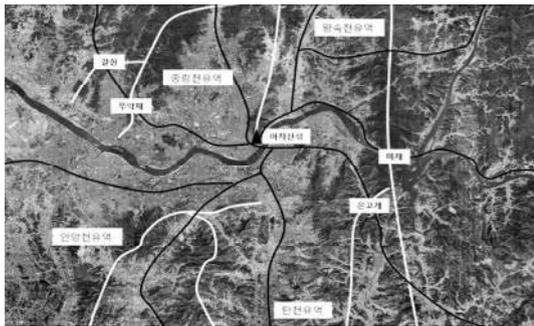
이나 현재 남아 있는 한성백제시대 산성을 통해서 각 교통로의 정비 시기 및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

백제 초기 교통로의 정비는 대체로 한성 북부 및 동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초기 낙랑이나 말갈과 전투기록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록의 기년은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성장 과정에서 북쪽과 동쪽 지역으로 단계적인 진출의 모습은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위례성이 침입 당했다는 전투기록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점차 한성 북쪽과 동쪽으로 추정되는 고갯길과 도강처로 변화된다. 이곳에 성책을 축조한 기록도 보이고 있다. 이는 백제의 방어시설이 점차 서울 분지 북쪽과 동쪽 일대로 확산되었던 사정으로 보여준다. 포천 고모리산성과 파주 월룡산성, 육계토성 등은 적어도 4세기 초반경에는 백제가 현재 양주분지 외곽에서 임진강(한탄강) 일대까지 방어시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성에서 이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 역시 가장 먼저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백제의 축성 기록은 예성강과 임진강 북쪽에 집중되었다. 고구려와 전투를 위해

백제군이 치양은 물론 평양성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4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백제의 북방교통로는 최소한 현재 개성과 그 주변 일대까지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방교통로는 한성에서 양주분지까지 이어지다가 여기서 두 방향으로 분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고모리산성을 지나 반월산성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적성을 지나 육계토성 부근의 임진강을 거쳐서 개성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와 다른 또 하나의 북방 교통로는 서울분지 서쪽 고갯길을 지나 고양을 거쳐서 월릉산성에 이르고 한강 하구로 연결되는 교통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향에 교통로는 가장 먼저 등장한 백제의 기간 교통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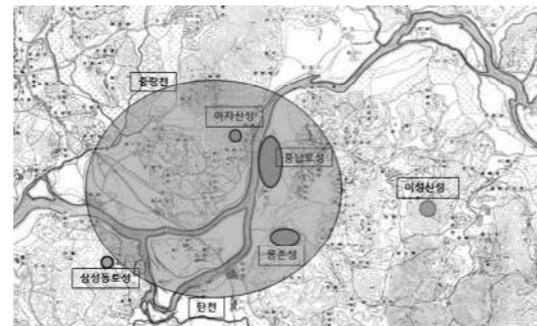
동쪽 방향의 교통로는 이천과 여주 방향으로의 진출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연 지형을 고려하면 현재 광주 일대를 거쳐서 이천과 여주 방향으로 가는 것과 한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 양평을 거쳐 여주로 진출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향의 교통로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말갈 세력과의 전투와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정확한 개척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말갈세력과 전투기록이 백제 본기에서 점차 사라지는 시점이 교통로의 개척 및 활용이 시작되었던 때로 주목된다. 대체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3세기 말경으로 보이고 있다.



서울주변의 산줄기와 교통로(흰선 : 산줄기 검은선 : 교통로)

기년상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4세기경에는 교통로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천 설봉산성은 팔라야 4세기 후반으로 이 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천 설성산성 역시 축조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방향의 교통로가 국가의 기간교통로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주 장미산성, 원주 법천리 고분, 진천 산수리요지 등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경을 상한으로 하는 백제 유적들이 이 방향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4세기 이전에는 말갈세력과 관련하여 개척되었지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백제가 남한강 상류지역이나 금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과 서쪽 방향의 교통로는 자연 지형을 고려하면 한성에서 탄천을 따라 용인 구성과 신갈을 지나 평택에 이르는 길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길은 앞의 북방 및 동방 교통로와 비교하여 뚜렷한 정비 시기나 과정을 추론하기가 어렵다. 백제초기 마한세력과의 교역 및 교류가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대적으로 군사적 활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정비 과정을 살피기 어렵다. 다만 이 길을 따라서 용인 구성, 화성 청계리 일대에서 3세기 후반 이후의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마을이 조사된 것으로 고려하면 이 시기를 전



한성백제 중심지

후로 백제의 기간교통로에 속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교통로는 금강 유역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서남방 방향으로서는 과천을 지나서 수원과 화성을 거쳐 아산만일대로 진출하는 교통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길성리 토성은 그러한 교통로의 거점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삼성리 토성을 지나서 현재 서울 강남일대를 지나 인천 방향으로 진출하는 교통로도 있다. 백제 초기 미추홀 세력과 통합 과정에서 정비되어 강화도 방면 및 한강 하구 남안으로 진출하는 교통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역시 구체적인 정비 과정과 활용 문제는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경기도 일대 백제 교통로는 현재 출토된 백제 산성의 축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정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각 교통로의 성격을 역추적하면 군사적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개척되고 정비된 것이 북방교통로와 동방교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교통로는 각각 고구려와 신라(가야)로 통하는 대외교통로이기도 하다. 반면에 서방과 남방교통로는 군사적 활동 외에도 사회경제적 성격이 강한 교통로로 추정된다. 남방 교통로는 마한제국과의 교류에서 출발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백제가 이 지역을 영역화하면서 경제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방교통로는 백제의 해양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한강 하구를 통하는 수로의 보조교통로로 강화도 일대 및 안산만, 아산만 등 서해안 주요 기항지를 통한 교역로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강수로 역시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 중 하나였다. 남한강 상류와 한강 하구로 통하는 가장 편리한 교통로였다. 특히 북방과 동방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지원과 보급로로서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강 하구는 서해안 연안해로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수로는 백제의 대외교역의 중추적 교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고양 벽절산 유적이다. 백제가 수로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이러한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적어도 4세기경에는 백제가 한강 수로를 방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방어시설을 요충지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4세기 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현재의 연백평야 일대로 추정되는 치양과 부근의 관미성을 차지하기 위해 혈전을 펼쳤던 것도 한강 하구의 재해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박중균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한성기 도성방어 체계와 경기지역 산성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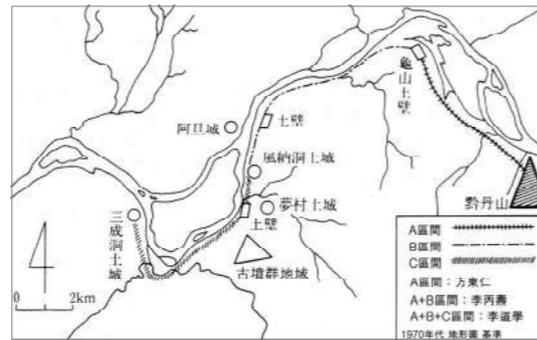


백제 한성기의 첫 도성은 바로 ‘(하남)위례성’이며, 475년 고구려의 침공에 의해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의 왕도는 ‘한성’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도성 변천에 대해서 최초 풍납토성에 도읍을 정한 후 3세기 중후반경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를 도모한 백제가 고구려와 낙랑, 말갈 등 북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새로운 방어성인 몽촌토성을 축조하는 등 도성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한 바 있다.

즉, ‘한성’은 백제의 왕권 강화 및 체제 안정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위례성’을 확대 정비한 도성으로서, 위례성과 별개의 왕성이 아닌 위례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성은 개로왕대 고구려의 침공에 의한 함락 기사를 볼 때 ‘北城’과 ‘南城’의 양성 구조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성백제시대의 도성제도는 단일궁성인 위례성에서 두개의 궁성을 갖춘 한성으로 변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계왕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원래 위례성으로 불리던 궁성에 추가로 궁성이 축조되면서 각기 북성과 남성으로 대별되는 한성이

건설되었으며, 이것이 곧 한성백제시대 도성의 양궁성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위례성’인 풍납토성이 단독으로 존재하다가 후기에는 몽촌토성이 추가로 축조되면서 ‘한성’으로 변화되었고, 475년 웅진 천도 직전 ‘한성’을 이루었던 ‘북성’과 ‘남성’이 바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라는 것이다.

백제 한성기에는 이러한 도성 체제를 확립한 것과 더불어 도성 외곽의 전략적 요충지에 방어용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게 된 배경에는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 체제



사성 및 개로왕대 제방 위치도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관련 유적 분포도
(①풍납토성 ②몽촌토성 ③삼성동토성 ④아차산성 ⑤석촌동고부군 ⑥방이동고부군 ⑦가락동고부군(별실) ⑧미사리유적 ⑨이성산성 ⑩남한산성)

의 확립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해 가면서 풍납토성의 단일 궁성 체제에서 몽촌토성을 추가로 축조하며 양궁성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낙랑과 말갈, 고구려 등 북방 세력과의 대결 구도 속에 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백제 초기에는 위례성으로 지정되는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강의 이북과 이남에 각기 아차성과 사성을 축조하였다. 아차성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성으로 추정되는 삼성동토성 역시 도성의 서쪽에서 한강 하구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의 주변에 위치한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은 비록 고고학적으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입지와 문헌기록 등을 보건대 한성도읍기 후기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로왕대에는 한강

이남으로 삼성동토성에서 검단산까지 제방을 쌓아 강물의 범람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도성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는 전략적 요충지마다 방어용 산성을 축조하였다. 대북 방어성으로는 포천의 고모리산성과 반월산성이 대표적이고, 동쪽으로는 이천에 설성산성과 설봉산성을 쌓았다. 서해안 지역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인천의 계양산성을 백제 한성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최근에 문수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성곽 흔적이 발견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성의 남쪽으로는 안성천 유역에서 망이산성과 도기동유적 등이 발굴되어 남방 방어체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제 한성기에는 도성의 방어를 위해 도성 주변에 핵심적인 방어시설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성 외곽의 경기 지역에도 사방으로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축조 주체와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조사 성과가 늘어날수록 백제 한성도읍기 방어 체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양정석_수원대학교)

주제 3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김호준
충북문화재연구원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은 1999년에 단국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이천 설봉산성 서문지 아래에서 백제 석축성벽을 찾음으로써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 석축성벽 뿐 만 아니라 그 아래에 묻혀 있는 또 다른 성벽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라 석축성벽의 해체와 함께 조금은 무모하지만 기반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가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고학 성과는 삼국 중 백제가 석성을 가장 늦게 수용하였고, 석성의 축조는 삼국 중 고구려가 제일 먼저이고, 고구려의 석성 축조술이 신라나 백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학설



을 뒤집는 사례가 되었고, 백제 석축산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지형별 축성법과 이에 따른 축조기법, 기초시설, 성벽에 사용된 면석재를 비교, 검토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한성기 백제가 석성을 축조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성시대 도성으로 비정되는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이 土城으로 축조되었고, 6세기 전반에 축조된 사비도성도 土城이기 때문이다. 도성이 土城이기 때문에 산성이나 지방에 축조된 성곽은 당연히 토성



이천 설봉산성 서문지 백제성벽 외벽



이천 설봉산성 서문지 A'백제성벽 상면 신라성벽

이었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 중 암반에 턱을 주어 기단석을 밀리지 않게 하는 수법과 능선부 성벽을 축조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암반을 조성하는 등의 기법이 신라의 석축산성 축조기법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한성기 백제의 기술력이 석축산성을 축조할 수 없을 뿐더러 석재 가공기술 및 이를 운용하는 석장집단도 부재했을 거라는 견해이다.

5~6세기 신라 석축산성의 원형이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보는 삼년산성, 문경 고모산성, 영월 정양산성의 계곡부 성벽은 축조 이후 지속적으로 수개축한 성벽으로 초축 당시의 모습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후 6~7세기에 축조된 신라 석축산성은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을 비판하는 견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축성된 백제의 석축산성 기초시설 및 뒤채움 기법을 채용한 반면에 토축부(일명 내탁부) 대신 내벽을 쌓고 그 안쪽에 토사로 다져서 내부의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 석축산성은 지속적으로 성벽과 보축성벽 등에 대해 증개축을 통해 현재의 내외협축의 대형 성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제의 석축성과 축조기법은 5~6세기 고구려 축성법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축성법은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호로그루와 당포성과 무등리 2보루, 흥련봉 2보루 등의 토축과 석축을 결합한 일명 토심석축공법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토축부분과 석축부분의 접합부에 우수가 스며든다면 토축 부분의 축상단 붕괴와 동시에 석축의 붕괴문제, 해빙기 때 토축부 상단이 연약해지면서 앞선 상태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든다. 한성기 백제의 석축성벽 성돌의 가공기술과 관련하여, 부모산성 보루성의 석축벽과 같은 축조방식은 4세기 중엽경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진 증평 추성산성의 남성 외성의 남수문지, 내성의 북동문지, 북성의 내성 남문지 등의 양 측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청주 인근의 백제 횡혈식 석실분(천안 용원리유적, 공주 수촌리유적, 청원 부강리유적, 청원 주성리유적, 연기 송원리유적, 청주 신봉동고분군)의 벽체는 보루성의 석축벽보다 정교하게 가공된 석대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산성 보루성의 석축방식을 기술계통상으로 축조시기를 구분하기 보다는 보루성 성벽이 급하게 축조되었을 가능성과 백제의 중앙집단 보다 지방 유력 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성벽은 먼저 계곡부의 경우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에 축조되었다. 계곡부 상단부를 막아서 축조한 백제석축성벽은 이천 설봉산성 2차 서문지, 포천 반월산성 6차 동문지, 이천 설봉산성 2·3차 서벽이다. 이 성벽 안쪽에는 토축부가 존재한다. 이 토축부는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벽 상면으로 진입의 용이성, 성벽 안쪽의 공간활용과 성벽으로 우수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석성 무게중심을 성 안쪽에 있는 토축부에 의지하는 기능과 축조의 용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6~7세기 신라 석축성과 달리 내벽을 축조하지 않고, 뒤채움재가 토축부와



접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토축부가 석축성벽과 동시에 축조되었음을 알게 한다.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에 대한 고고학 자료가 최근에 부족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만, 경기도 이외 지역의 백제 성곽조사와 함께 웅진·사비기

석축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백제 석축산성의 출현 시기에 대한 문제와 한성-웅진-사비기에 이르는 백제성곽의 축성사적 위치와 부족한 백제사를 보완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제 4

백제 산성 출토 백제토기의 특징과 제작방법

방유리
한백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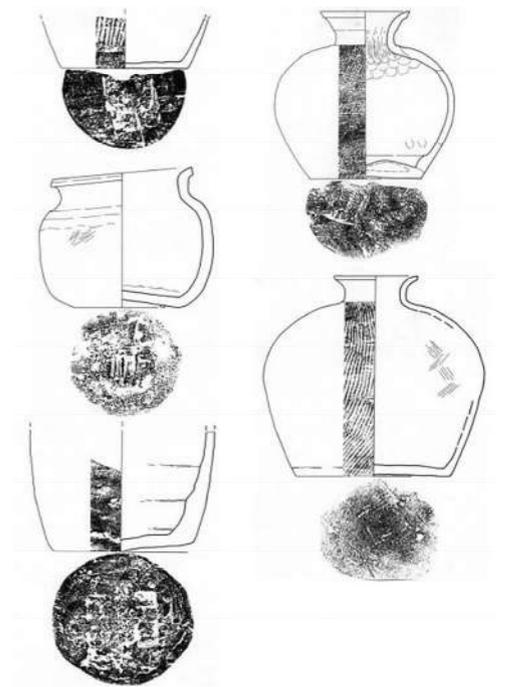


백제토기 연구는 문헌 기록이 부족한 고대사를 보완하기 위해 주로 출현시기와 형성문제, 양식검토, 형식 분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공유되는 같은 토기 양식은 정치체의 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연구가 많았다.

2000년대 이후 서울 풍납토성과 경기도 일대의 새로운 유적발굴성과는 한성기 백제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토대가 되었다. 최근 백제토기 연구는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고고학 외에도 민족지고고학, 자연과학, 실험고고학의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어 그 결과도 다채롭다. 개인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 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성백제 토기 연구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수립하여 한성지역 백제토기 분류표준화 방안연구, 고고유물 자료집성, 토기생산 기술복원연구 등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의 백제토기는 4세기중엽 이후 한성백제기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이 시기는 제작기술이 더욱 다양화되고, 소성면에서도 가마를 통한 고화도 기술이 안정화되어 대량생산체계가 정착되던 때이다.

따라서 이같은 유사성은 한성기 토기문화의 중심권과 같은 문화적 기반 위에 거점성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의 토기문화도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설성산성 토기 물레 추정흔적



설성산성 호(509) 저부편 탐본 및 토기 받침석

수 있다. 특히 공납과 관련된 체계가 완성되면서 대형토기들이 지방에서 공납물을 징발하여 주요 거점 성곽과 취락군으로 임시저장하고 운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통의 요지와 방어의 거점에 식량과 장비를 비축하기 위해 창고군을 설비했다는 최근의 연구성과도 검토할 수 있다. 4세기 중엽이후 제작된 호는 기벽이 얇게 성형되어 무게가 한층 가벼워 이동과 운반에 편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용적률도 크고 무게까지 가벼운 토기제작은 당시 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한성백제기 4세기 중엽이후 생산된 백제토기는 이전 시기와 달리 소규모의 제작생산체계는 아니다. 이는 크기와 형태면에서 일관성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적인 장인집단에 의한 대량생산 체계 속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성백제가 정치경제의 제도적인 정비 속에서 조직적인 생산에 따른 분배와 관리가 국가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성백제기 토기의 특징은 고화도 가마소성이 적용된 회색 경질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도, 토기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저화도 적갈색 연질토기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작기술은 태토를 선택

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며, 특징적인 기종으로 대표된다. 또한 제작성형 과정에서는 기형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권상법, 윤적법, 물레, 타날법 등을 다채롭게 사용하고 응용하였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백제토기에 대한 분석은 단지 형식적인 분류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제작과정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제작기법의 검토는 한성백제시대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토론(한준영 경기도박물관)

주제 5

4 ~ 5세기 삼국의 각축 - 백제의 남진과 신라의 북진

전덕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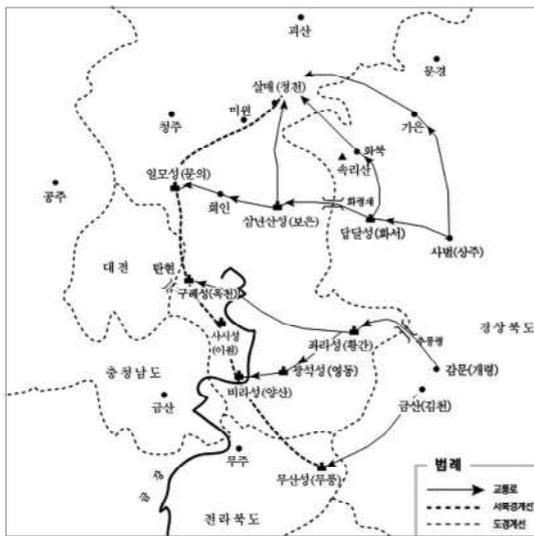


고구려가 475년 백제의 漢城을 함락시키고 계속南進하여 아산만에서 천안·진천을 연결하는 선에서 백제와 접경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여 소맥산맥 일대에山城을 축조하였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는 미호천 중·상류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고구려와 신라 역시 청주 근방에서 여러 차례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의南進이 둔화되자, 백제는 신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동쪽 경계지역에 산성을 쌓거나 목책을 설치하였다. 신라는 550년에 청주지역을 차지하고, 551~553년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이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까지 신라와 백제는 경기도와 충청, 충남·대전광역시와 충북의 경계를 국경으로 삼아 공방전을 자주 전개하였고, 그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경계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백제는 5세기 후반에 경기도와 충남, 충북·전북 일부지역에 22橿廳을 설치하고, 거기에 '~王' 또는 '~侯'라고 불리는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실현하였고, 신라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사이에 지방의 복속 소국이나 읍락집단을 行政村으로 편제하고, 거기에 道使 등을 파견하였

다. 5세기 후반 이전에 백제와 신라는 복속 소국이나 읍락집단 지배자의 재지기반을 용인해주고, 그들에게 공납물을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지배하였다. 이때 백제와 신라는 지방의 교통요지나 전략적 요충지에 관리를 파견하여 복속 소국이나 읍락집단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권을 수호하기 위해 옛 진한과 마한의 경계지점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4세기 후반 이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 신라와 백제가 충북 일원에서 자주 전투를 벌였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자신의 세력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세력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 국지적인 전투를 벌였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백제는 5세기 후반에, 신라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쳐 복속 소국과 읍락집단을 해체하여 지방통치조직으로 재편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하였다. 그 이전 시기에 백제와 신라는 복속 소국과 읍락집단 지배자의 지배기반을 용인해주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공납물을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지배하였다. 특히 5세기에 이르러 두 나라는 복속



5세기 후반 신라의 서북 경계와 교통로

소국과 읍락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지방의 복속 소국 지배자에게 금동관을 수여한다거나 또는 복속 소국이나 읍락집단이 조성한 고분에서 두 나라 양식의 토기가 널리 부장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백제와 신라는 지방의 교통요지나 전략적 요충지에 관리를 파견하여 복속 소국과 읍락집단을 통제·감찰하였고, 자신들의 세력권을 수호하기 위해 옛 마한과 진한의 경계지점인 충북 일원에 군사적 거점을 두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4세기 후반 이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 충북 일원에서 신라와 백제가 싸웠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자신의 세력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두 나라가 충돌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진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신라는 소백산맥 일대에 산성을 쌓았는데, 당시에 축조한 산성을 조사한 결과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의 신라의 서북경계는 무주 무풍면(茂山城), 영동 양산면(鄕羅城 = 椴峯城), 옥천 이원

면(沙尸城 = 沙尸山城), 옥천읍(古尸山城 = 仇禮城), 문의면(一牟城), 괴산 청천면(薩貫)을 연결하는 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구려와 백제는 충북지역에서 접경하였는데, 6세기 중반까지 두 나라는 증평군 도안면으로 비정되는 道薩城(爾林城)을 비롯한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두 나라의 경계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변동이 있었다. 신라가 550년에 고구려 道薩城과 백제 金岬城(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을 빼앗고, 청주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 551~553년에 고구려와 백제를 잇따라 공격하여 마침내 한강유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였다. 553년 이후 백제의 북쪽 경계는 아산만에서 천안, 진천을 잇는 선이었고,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은 커다란 변동이 없었다. 553년 이후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하는 熊州·全州의 동쪽에 위치한 군현과 漢州의 남쪽 및 尙州의 서쪽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현이 백제와 신라와의 경계에 해당하였는데, 이후 신라와 백제 사이에 물고물리는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면서 백제의 동쪽 경계와 신라의 서쪽 경계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통일 이후 신라는 백제 말기의 신라와 백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漢州와 熊州, 全州, 尙州의 군현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토론(김재홍_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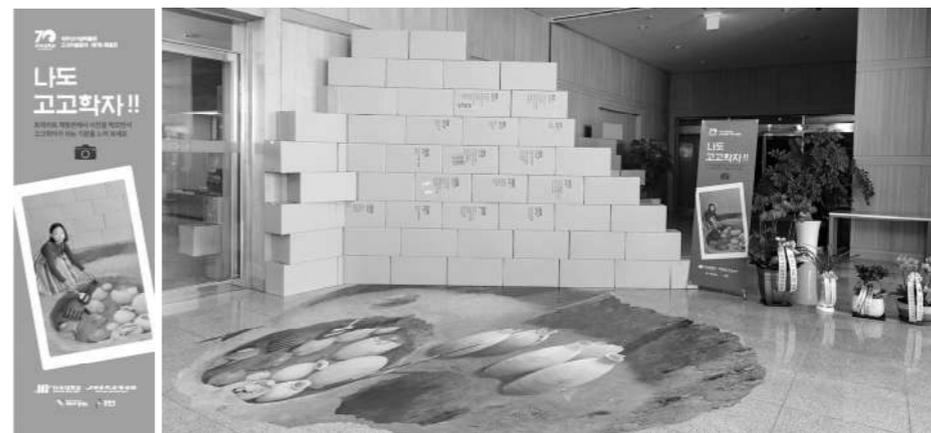
교육체험행사 1

트릭아트 체험존 ‘나도 고고학자!!’

일시 | 2017.9.15 ~ 2017.11.17

장소 | 고고미술관 로비

‘경기도 산성과 백제’ 특별전 체험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전시실 입구에 이천 설성산성 발굴 현장을 트릭아트 체험존으로 만들어 사진을 찍으면 관람객이 직접 유물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착시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는 딱딱한 느낌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미있는 포즈를 연출하도록 하여 특별전 유물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백제 토기만들기 '백제 토기의 숨은 멋 찾기'

일 시 | 2017. 10.11 / 10.13 / 10.17 / 10.18 (총 4회)

장 소 | 박물관 제5전시실

'경기도 산성과 백제' 특별전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변 고등학교의 동아리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학예연구원의 안내 하에 특별전을 관람하면서 백제토기의 특징과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생들이 직접 백제토기를 모티브로 하여 토기나 자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물관 5전시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흙을 만져 도자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전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학교 및 학생수

	일시	참가학교	학생 수
1	10월 11일	현암고	'세계유산반' 동아리 학생 12명
2	10월 13일	대지고	학생 20명
3	10월 17일	인근지역 초등학교	초등학교생 20명
4	10월 18일	죽전고	'반크' 동아리 학생 15명
총참가인원			67명



발굴현장 '증강현실' 체험

일 시 | 2017.9.15 ~ 2017.11.17

장 소 | 고고미술관 로비

'경기도 산성과 백제' 특별전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하였다. 특별전시실 입구에 '증강현실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3D안경을 쓰면 눈앞에 이천 설성산성 발굴현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관람객이 직접 발굴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유물이 발굴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전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글 운영 예술전시 플랫폼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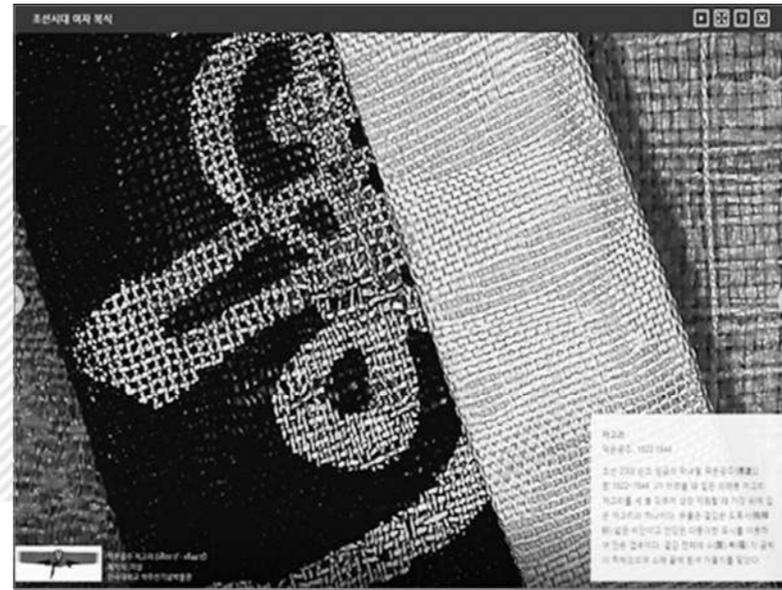


기가픽셀 이미지 촬영 현장 모습



구글의 온라인 예술작품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가 전 세계 42개국, 180여 개 문화기관과 협업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를 6월 9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고대 실�크로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000년 패션 역사를 조망한 온라인 전시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대 실�크로드에서 베르사유의 우아한 패션과 브리티시 펑크(British punk) 및 현대 의복의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구글의 가상현실(VR)과 360도 영상,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동감을 더했다.

이번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에서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조선시대 여자 복식'과 '조선시대 남자복식' 전시를 선보였다. 이 전시는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복식 유물을 세기 별로 보여주었는데 조선 남녀 패션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덕온공주 저고리의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 직물 표면 뿐 아니라 실의 가닥까지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유물을 실제로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대 한국 패션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 전시로 글로벌 전시 개막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공개 되었다. 이번에 소개되는 유물 중 일부는 파트너십에 따라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기술로 구현되어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옷의 독창적인 수작업 디테일을 구글의 아트카메라가 촬영한 기가픽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구글 아트카메라는 특수 목적의 장치로서 수백 장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촬영한 후 하나로 연결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디테일을 드러내는 매우 세밀한 하나의 완전체를 생성한다. 이러한 기술로 조선시대 의복을 이루는 직물의 무늬 뿐 아니라 가는 실의 가닥까지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면과 선을 구성적 특징으로 갖는 우리 옷의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복식 유물의 특징과 개성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패션 전문가, 큐레이터 및 디자이너와 전세계 대학, 박물관 및 NGO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이번 전시는 패션이 문화의 일부이자 예술의 한 형태이고 진정한 장인정신의 결과물로 다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글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리 박물관에 보존된 패션 컬렉션이 세계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조선시대 여자 복식 / 축소와 과장

조선시대 여성 복식의 변화와 유행	조선시대의 여성의 옷은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과 중심을 이루며 부분적인 변화와 유행을 가져 왔다. 엄격한 신분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위해 적극적으로 패션을 수용하였다.
16세기	이 시기 여성의 저고리가 허리를 덮을 정도의 길이로 품이 넓어 몸을 완전히 가린다. 저고리와 함께 입는 치마는 허리에서 끈으로 허리를 둘러 묶어 입었다.
17세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여성의 의복에도 실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6세기에 비해 품이 작고 길이가 짧아져 몸에 맞는 저고리와 여전히 허리 둘러 입는 치마를 입었다.
18세기	이전 시기에 비해 저고리 길이와 품, 그리고 소매가 짧아지고 좁아진다. 저고리의 길이를 따라 치마는 허리선 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치마허리가 드러나 여성의 몸매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19세기	여자의 저고리는 여러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더욱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었다. 저고리의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품과 소매가 좁아졌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가장 짧은 저고리가 입혀졌다. 치마는 허리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허리말기가 드러나고 길이는 좀 더 길어진다.



조선시대 남자 복식 / 권위와 실용

조선시대 남성 복식	조선시대 남성의 옷은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른 제한과 규제 하에 있었다. 지배계층의 남성들은 여러 가지 관복을 그들의 직책이나 품위에 맞게 유지하였다. 이전 시대부터 입어온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포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구성을 토대로 시대정신과 문화를 반영하였다.
16세기	개국 이후 이전 시대의 제도와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로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는 시기로 옷이 매우 크고 넓고 길었다. 특히 다양한 포가 널리 착용되었다.
17세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실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6세기에 비해 품과 길이가 작아지고 다양한 포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변화의 시기이다.
18세기	왕조와 사회의 안정 속에 다양한 포를 비롯한 복식문화 또한 안정과 실용의 가치를 반영하고 번성하였다.
19세기 이후	서양 문화의 도입과 정치 경제적인 격변과 함께 옷은 간소화되고 간략화되어 더욱 실용적인 경향으로 변화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전통복과 서양복이 함께 착용되었다.

머니투데이 뉴스 인쇄하기 프린트 닫기

"3000년 패션 역사를 한 눈에"...구글, 온라인 전시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명민 기자 | 입력 2017.06.09 11:0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view.php?no=2017060910540138344&type=1> 백서

구글 온라인 예술작품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가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해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등 전세계 180여 유수 문화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VR(가상 현실), 360° 영상, 스트리트 뷰,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등 구글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대 실�크로드에서 베르사유의 우아한 패션과 브리티시 핑크 및 현대 의복의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언론 보도 자료

한국 블로그의 메인페이지에 보도된 내용

구글이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의 3000년 역사를 짚어보고 한국 패션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립니다
2017년 4월 7일 김주은

구글의 온라인 예술작품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가 전세계 42개국 180여 유수 문화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3,000년 동안 내려온 패션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해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등 전세계 180여 유수 문화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가상 현실(VR), 360° 영상,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등 구글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대 실�크로드에서 베르사유의 우아한 패션과 브리티시 핑크(British pink) 및 현대 의복의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모든 것을 누구나 쉽게 탐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전시합니다.

복식유물 보존처리

석주선기념박물관은 국내 출토 복식의 수습 조사 및 보존처리 연구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개관 이래 많은 학술 용역과 위탁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소장유물 보존처리를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보존연구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물유물 보존처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식유물 보존처리분야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번호	기간	사업명	위탁 기관	내용
1	2016.12.29-2017.09.23	장서각 소장자료 보존처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증된 동래정씨 정난중 후손가의 유물중 조복 일습 등을 포함한 복식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2	2017.03.23-2017.08.21	소장자료 보존처리 (의생활류)	독립기념관	이회영선생(李會榮 : 1867~1932) 의복을 비롯한 정재건선생의 관모류 등에 대한 보존처리
3	2017.05.08-2017.05.21	국립여성사전시관 소장 유물 보존처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립여성사전시관에 기증된 근현대 복식 유물에 대해 특별전시를 위한 보존처리
4	2017.06.01-2017.07.31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실무자 직물보존처리 분야 실습교육	한국문화재단	방글라데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연구실 실무자에 대한 직물 유물 보존처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본박물관에서 실시
5	2017.10.16-2017.12.22	전시자료 복제(의류)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이회영선생(李會榮 : 1867~1932) 의복 및 모자와 신발의 현상복제품 제작
6	2017.11.13-2017.12.31	보존처리 대상자료 직물시료 정밀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물 중 보존처리를 위한 직물편 또는 실 상태의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 연구조사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학예사 실무교육 모습



보존처리를 마친 이회영 선생의 의복



단오부채 만들기
나만의 부채로 시원한 여름나기

단오부채 만들기 - '나만의 부채로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가 2017년 5월 17일~18일 이틀간에 걸쳐 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세 번째 맞는 행사로 축제일에 맞추어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는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던 전통을 알리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많은 단국인들이 자유롭게 부채를 꾸미며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료 체험행사로 진행되었으며 500여명의 단국가족들이 참가하여 자신만의 개성있는 부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7.5.17 ~ 18(목)

장소
박물관 앞마당

대상
지역주민, 단국대학교 학생, 교직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여기는
박물관,
나는
큐레이터

단국대학교 입학처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 '여기는 박물관, 나는 큐레이터' 행사를 용인 구성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직접 유물을 실측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해보는 학예사로서의 역할을 체험하였다.

일시
2017.9.28(수) 09 ~ 12시

장소
석주선기념박물관 제5전시실

주관
단국대학교 입학팀, 석주선기념박물관

시간	내용	비고
1교시	석주선기념박물관 맛보기	
2교시	1. 박물관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4. 박물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문다현, 이종찬 (석주선기념박물관) 양수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3교시	1. 유물관리는? 2. 오늘의 유물관리 체험	김현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4교시	궁금한 것 물어보기, 소감문 작성	

<직업 체험 소감문>

작성일: 2017년 9월 28일 수요일 중학교 () 학년 () 반 이름 (김)

· 박물관 학예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또는 소감은?

처음에는 박물관 구경하는줄 알고 잘만했는데 박물관 학예사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도 정말 많고 진짜내가 박물관 학예사가 된 것 같았다.

도자기를 그릴때 손까지 떨면서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선생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신장도 받고 하시어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나중에 가족들한테도 다시 와보고 싶고 도자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안 것 같아 좋다.

특히 도자기의 눈이, 가로, 세로, 지름, 두께 등을 잘 재는법, 끈수(?) 등을 알게되어 좋았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소감문



도록

진주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이씨 출토 복식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에서 개최한 제36회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에 대한 도록이다. 내용은 진주 류씨(晋州 柳氏) 참판공 류정(繼: 1684-1753년)의 정부인 경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 복식 47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다.

발행일: 2017. 05. 19
크기: 국배판 변형(210×270)
면수: 204
복디자인: 네오프린텍
펴낸곳: 단국대학교 출판부



경기도 산성과 백제

단국대학교 개교 70주년, 2017 경기도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및 석주선기념박물관 고고미술분야 제7회 특별전 “경기도 산성과 백제” 전시의 도록이다.

발행일: 2017. 11. 01
크기: A4 변형(222×281)
면수: 108
지원: 경기도, 용인시
복디자인: 퍼스트펍권



『어진에 옷을 입히다』 2017 올해의 우수 학술도서 선정

2016년 석주선 박사 20주기 추모 행사 도록 중 『어진에 옷을 입히다』가 학술원 선정 “2017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석주선 박사 추모 20주기에 맞추어 개최한 왕복식 착장 시연에 출품한 복식의 고증 과정을 논고와 함께 수록한 책으로 석주선기념박물관과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가 공동 편찬하였다. 올해의 우수 도서 선정은 2016년에 이어 2번째의 쾌거이다.



■ 학술지 | 韓國服飾

ISSN 2005-3959

구분	표지	발행일	수록논문
제37호		2017.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이씨 묘 출토 복식에 나타난 직물 문양 연구 - 이은진 • 『사소설』의 복식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 - 한미경 • 경주이씨 묘 출토 저고리에 관한 연구 - 이명은
제38호		201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 연구 - 박서림 • 임오년(1882)가례 『왕세자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복귀」복식연구 - 안애영 • 조선 후기 佛畫 腹藏囊의 현황과 의미 - 오호석

■ 연보 | 博物館紀要 32

ISSN 1223-9683



박물관기요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년1회 발행하는 연속간행물로서 제32호는 2016년 활동 사항을 정리 수록하였다.

발행일 : 2017. 12. 31
크기 : 46배판
면수 : 50
제작 : 호진커뮤니케이션즈

■ 기증

이난숙 선생 기증 귀주머니

기증일 | 2017년 1월 13일
유물수량 | 총 2점 (No. 11316~11317)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구봉초등학교 교사 이난숙 선생님께서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귀주머니 2점을 기증하였다.

번호	유물번호	명칭	사진	시대
1	B011316	귀주머니		1950년 전후
2	B011317	귀주머니		1950년 전후

석태홍 선생 기증 레코더와 테이프

기증일 | 2017년 1월 16일
유물수량 | 총 2점 (No. 11318~11319)

남사 석주선 박사의 조카(남동생의 아들) 석태홍 선생이 기증한 테이프 레코더와 테이프 8종이다. 1995년 봄경 석주선 박사가 조카에게 가족을 생각하시며 기억하라고 선물하신 것이라고 한다.

번호	유물번호	명칭	사진	시대
1	B011318	히다찌 트랜지스터 테이프 레코더		1967년 이후
2	B011319	테이프 8종		1967년 이후

유효선 교수 기증
근대 복식 유물

기증일 | 2017년 3월 6일
유물수량 | 총 7점 (No. 11320~11326)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유효선 교수가 서울대학교 동문인 박종식 선생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유물은 박종식 선생(덕성여자대학교교수 역임, 서울대식품영양학과졸업)의 시어머니(진명여고 동창회장을 역임)가 착용하거나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한다.

번호	유물번호	명칭	사진	시대
1	B011320	누비바지		1950년대
2	B011321	누비바지 반제품		1950년대
3	B011322	속속곳		1950년대
4	B011323	홀치마		1950년대
5	B011324	홀치마		1950년대
6	B011325	홀치마		1950년대
7	B011326	홀치마		1950년대

김정숙 여사 기증
싱거미싱

기증일 | 2017년 3월 8일
유물수량 | 총 1점 (No. 11327)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대한민국 방송기자 1호 문제안(文濟安, 1920~2012) 선생 모친이 사용하던 것을 김정숙 여사가 선물 받아 사용하다가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문제안 선생의 유족으로 문현경 단국대 교육학과 교수가 있다.

번호	유물번호	명칭	사진	시대
1	B011327	싱거미싱		근대

신의식·김영현 선생 기증
중국 경극 복식 복원품

기증일 | 2017년 9월 15일
유물수량 | 총 10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신의식 교수와 지인 김영현 선생이 중국 경극 남녀 복식 복원품 일습을 기증하였다. 2000년대 초 중국 상해 의복 센터에서 구입한 것이라 한다.



천안 역사학과 기증 고서 및 탐본자료

죽전캠퍼스 사학과와 천안캠퍼스 역사학과와의 통합에 따라, 역사학과 개설 이래 조사, 수집한 유물을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기증하였다. 기증된 유물은 고서와 탐본을 비롯하여 역사학과에서 조사한 천안 천흥사지, 흥경사지, 대평리사지 등 충남지역 일대의 유적에서 조사한 유적지에서 수습된 유물 등 모두 244건 2,683점이다.

종 류	건 수	
고 서	39건	219점
탐 본	152건	694점
자 개 자	2건	2점
포 백 척	5건	5점
도 토 류	46건	1,763점
합 계	244건	2,683점

역사학과 기증 고서목록

번호	고서명칭	크 기	수 량
1	논어(論語)	23.6×36.7	1건 7점
2	논해(論解)	23.6×35.4	1건 4점
3	맹자(孟子)	23.6×36.5	1건 6점
4	맹해(孟解)	22.5×35.2	1건 6점
5	중용(中庸)	21.4×32.8	1건 1점
6	옹해(庸解)	21×32.9	1건 1점
7	정본대학집주(正本大學集註)	24×39	1건 1점
8	학해(學解)	22.8×35.5	1건 1점
9	시전(詩傳)	23.7×36.8	1건 10점
10	시해(詩解)	22.5×35.2	1건 7점
11	서전(書傳)	23.5×36.7	1건 10점
12	서해(書解)	22.5×35.3	1건 5점
13	소학제자집주(小學諸子集註)	22×34	1건 4점
14	제어소학(製御小學)	19.5×32	1건 1점
15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	①18.5×30.5 ②21.5×32.5	1건 2점
16	소학언해(小學諺解)	22×34.2	1건 4점
17	사문류취(事文類聚)	17.5×25	1건 61점
18	남화경(南華經)	21.7×32.9	1건 5점
19	홍제전서일득록(弘齋全書日得錄)	21.8×33.3	1건 7점

번호	고서명칭	크 기	수 량
20	通鑑	20.6×32	1건 2점
21	통감(通鑑)	18.9×25.5	1건 2점
22	매화역(梅花易)	①15.4×22.6 ②20×22.1	1건 4점
23	정본집주서전(正本集註書傳)	15×22.2	1건 2점
24	통해(通解)	15×22.3	1건 2점
25	사례편람(四禮便覽)	20.6×22.5	1건 1점
26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16×23.5	1건 1점
27	우주두율(虞註杜律)	20.4×21.4	1건 2점
28	약천집(藥泉集)	18.2×28.8	1건 17점
29	삼국지(三國志)	18.2×28.8	1건 19점
30	삼국지(三國志)	18.4~19.6	1건 2점
31	자휘(字彙)	16×24.1	1건 14점
32	맹자외서(孟子外書)	14.9×22	1건 1점
33	경술년대한민력(庚戌年大漢民曆)	17.6×25.1	1건 1점
34	전고대방(典故大方)	15.7×23.2	1건 1점
35	통감언해(通鑑諺解)		1건 1점
36	가정백사길흥보감(家庭百事吉凶寶鑑)	14.7×20.6	1건 1점
37	가정백방길흥보감(家庭百方吉凶寶鑑)	15×2.6	1건 1점
38	토정비결(土亭秘訣)	15.3×20.6	1건 1점
39	토정비결(土亭秘訣)	14.1×21.5	1건 1점
합 계			39건 219점

역사학과 기증 탐본목록

번호	탐 본 명	크기	수량
1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	119×82.3	1건 1점
2	충추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 앞면	93.3×192.7	1건 1점
3	충추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 좌면	62.2×172.4	1건 1점
4	시인김부용묘비(詩人金芙蓉墓碑)	75×113.3	1건 1점
5	충성공한명회묘비석(忠成公韓明滄墓碑石)	72.1×120.9	1건 1점
6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조상기(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造像記)	52.2×73.2	1건 1점
7	문비(門扉)	42.9×48.2	1건 1점
8	기단부문양(基壇部紋樣)	89.1×44.3	1건 1점
9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121.8×285.2	1건 1점
10	가정목은양선생유허비(稼亭牧隱兩先生遺墟碑)	57×181.4	1건 1점
11	가정목은양선생유허비(稼亭牧隱兩先生遺墟碑)	74.3×179.3	1건 1점
12	경희궁지답도(慶熙宮址踏道)	134.5×109.6	1건 1점
13	고달사지사천왕상(高達寺址四天王像)	47.8×122.4	1건 1점

번호	탑 본 명	크기	수량
14	고달사지사천왕상(高達寺址四天王像)	48.4×122	1건 1점
15	고달사지사천왕상(高達寺址四天王像)	48×125.5	1건 1점
16	김세남신도비(金世男神道碑)	98.2×199.2	1건 1점
17	김세렴신도비(金世濂神道碑) 1·2면	87.4×226.4	1건 1점
18	김세렴신도비(金世濂神道碑) 3·4면	87×228	1건 1점
19	무령왕릉지석(武寧王陵誌石)	52.8×123	1건 1점
20	무령왕릉지석(武寧王陵誌石)	52.8×123.5	1건 1점
21	조헌전장기적비(趙憲戰場紀蹟碑) 전·좌면	126.2×266.4	1건 1점
22	조헌전장기적비(趙憲戰場紀蹟碑) 후·우면	127.5×268.3	1건 1점
23	문원공회재이언적신도비(文元公晦齋李彦迪神道碑) 앞면	114.8×227.3	1건 1점
24	문원공회재이언적신도비(文元公晦齋李彦迪神道碑) 뒷면	96.4×225.3	1건 1점
25	박문수묘비(朴文秀墓碑)	126.4×187.5	1건 1점
26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法泉寺智光國寺玄妙塔碑)	153.5×357.4	1건 1점
27	법천사지석조광배(法泉寺址石造光背)	120×188.7	1건 1점
28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6×133.3	1건 1점
29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4×130.4	1건 1점
30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5×123.4	1건 1점
31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5×133.5	1건 1점
32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5×133.4	1건 1점
33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6×130.3	1건 1점
34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4×133.1	1건 1점
35	보원사지오층석탑팔부신상(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神像)	80.7×131	1건 1점
36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普賢寺朗圓大師悟眞塔碑)	111.6×284.3	1건 1점
37	여주신록사보제존자석종비(驪州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	71.7×179	1건 1점
38	연곡사동부도사천왕상(鶯谷寺東浮屠四天王像)	39.1×79.3	1건 1점
39	연곡사동부도사천왕상(鶯谷寺東浮屠四天王像)	38.9×79.6	1건 1점
40	연곡사동부도사천왕상(鶯谷寺東浮屠四天王像)	38.9×79.9	1건 1점
41	남연군이구묘비(南延君 李球墓碑) 앞면	64.1×174.8	1건 1점
42	남연군이구묘비(南延君 李球墓碑) 음기	74.2×176	1건 1점
43	이충무공명량대첩비(李忠武公鳴梁大捷碑)	117.4×274.1	1건 1점
44	원천석묘갈(元天錫墓碣)	83×172.3	1건 1점
45	원천석묘갈(元天錫墓碣)	83.5×172.6	1건 1점
46	예산화전리사면석불광배(禮山花田里四面石佛光背)	139.5×215.5	1건 1점
47	예산화전리사면석불(禮山花田里四面石佛) 북방불입상	96.6×265.8	1건 1점
48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56.2×113.3	1건 1점
49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76.1×151.2	1건 1점
50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56.4×166.6	1건 1점
51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58×151.2	1건 1점
52	정종영신도비(鄭宗榮神道碑) 앞면	88.2×217.1	1건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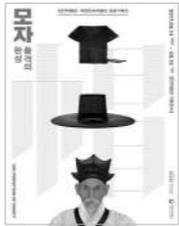
번호	탑 본 명	크기	수량
53	정종영신도비(鄭宗榮神道碑) 음기	88.4×217.1	1건 1점
54	정토사지법경대사자등탑비(淨土寺址法鏡大師慈燈塔碑)	157.1×339.8	1건 1점
55	문익공조엄묘비(文翼公趙嘸墓碑)	59.2×167.2	1건 1점
56	문익공조엄묘비(文翼公趙嘸墓碑) 음기	105×166.6	1건 1점
57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탑신 사방불남면	74.2×103.4	1건 1점
58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탑신 사방불서면	73.7×103.7	1건 1점
59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탑신 사방불북면	73.2×104.4	1건 1점
60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탑신 사방불동면	73.7×103.8	1건 1점
61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기단 팔부중상	88.1×145.5	1건 1점
62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기단 팔부중상	8.3×147.1	1건 1점
63	청주척화비(淸州斥和碑)	64.8×154.2	1건 1점
64	청계사석등(淸溪寺石磴) 표면 장식	144.9×199.8	1건 1점
65	청주운천동사적비(淸州雲泉洞事蹟碑)	117.8×252.9	1건 1점
66	한명회신도비(韓明會神道碑)	106.6×243.2	1건 1점
67	홍주성삼문유허비(洪州成三門遺墟碑)	81.7×192.9	1건 1점
68	봉선홍경사비갈문(奉先弘慶寺碑碣文)	105.8×234.6	1건 1점
69	대당평백제비(大唐平百濟國碑銘)	53.5×176	1건 1점
70	예산화비(禮山斥和碑)	56.5×146.8	1건 1점
71	홍경사비갈(弘慶寺碑碣)	102.7×220	1건 1점
72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릉비(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碑)	120.3×219.6	1건 1점
73	여주고달사지부도(驪州高達寺址浮屠) 사천왕상	117.6×108	1건 1점
74	한명회신도비(韓明會神道碑)	103×225	1건 1점
75	마애불(磨崖佛)	141×217.6	1건 1점
76	원원사지서삼층석탑(遠願寺址西三層石塔) 사천왕상	70.6×140.7	1건 1점
77	이시백신도비(李時白神道碑)	90.8×248.6	1건 1점
78	신동엽시비(申東曄詩碑)- 산에 언덕에	74.6×80.8	1건 1점
79	신동엽시비(申東曄詩碑)- 산에 언덕에 음기	67.7×86	1건 1점
80	신동엽시비(申東曄詩碑)	33.2×142	1건 1점
81	예산효자관노이주지문(孝子官奴李注之門)	49.6×92	1건 1점
82	천축고선생택-추사고택(天竺古先生宅-秋史古宅)	41.1×169	1건 1점
83	부여홍산상천리마애불입상(扶餘鴻山上川里磨崖佛立像)	206×578	1건 1점
84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56.5×167	1건 1점
85	덕유동신도비	54×124.5	1건 1점
86	홍대용묘표(洪大容墓表)	50.5×124	1건 1점
87	불상(佛像)	54.5×122	1건 1점
88	김좌진장군묘비(金佐鎭將軍墓碑) 앞·뒤·옆	56.7×179	1건 1점
89	김좌진장군묘비(金佐鎭將軍墓碑) 앞·뒤·옆	115.8×195	1건 2점
90	류청신신도비(柳淸臣神道碑) 앞	70.3×153.1	1건 1점
91	이천기묘표(李天機墓表) 앞·뒤	57.4×135.3 외	1건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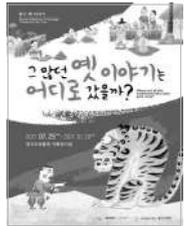
번호	탑 본 명	크기	수량
92	광흥창수김공묘비명(廣興倉守金公墓碑銘)	82.6×181.4	1건 2점
93	홍주의사총성역사업조성기(洪州義士塚聖域事業造成記)	118.6×82	1건 1점
94	절충장군조옹양위부호군조공묘갈명(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趙公墓碣銘)	110.5×191.6	1건 1점
95	한옹운사비(韓龍雲詩碑)	118.5×86	1건 1점
96	광덕사지시주비(廣德寺住持碑) 음기	70×98.5	1건 1점
97	광덕사지시주비(廣德寺住持碑)	62.5×39.5	1건 1점
98	광덕사문비(廣德寺門扉石)	70.3×135.2	1건 1점
99	하마비(下馬碑)	69.1×80.6	1건 1점
100	팔부신상(八部神像)	50.7×50	1건 1점
101	귀암(龜岩)	17×56.2	1건 1점
102	문익조공신도비명(文益趙公神道碑) 앞·뒤·옆	100.8×257.8 외	1건 3점
103	이조참판최공묘갈명(吏曹參判崔公墓碣銘)	45.5×182.7 외	1건 2점
104	홍양호묘표(洪良浩墓表) 측면	56.3×148	1건 1점
105	홍대용묘표(洪良浩墓表)	70.5×123.5	1건 2점
106	광덕사시주비(廣德寺住持碑) 앞	69.7×129	1건 1점
107	광덕사시주비(廣德寺住持碑) 옆	35×136.6	1건 1점
108	광덕사시주비(廣德寺住持碑) 뒤	69.6×131.9	1건 1점
109	광덕사문비석(廣德寺門扉石)	75×36	1건 1점
110	박문수어사비(朴文秀御使碑) 뒤·옆	52.5×135.4 외	1건 3점
111	이시백묘표(李時白墓表) 앞	70.5×118.6	1건 1점
112	이시백묘표(李時白墓表) 옆	35×120.3	1건 1점
113	이시백묘표(李時白墓表) 뒤	70×119	1건 1점
114	홍대용묘표(洪大容墓表) 음기	55×135.7	1건 1점
115	사월 학생혁명 기념탑	116×71.6	1건 1점
116	동학혁명군위령탑(東學革命軍慰靈塔)	116.7×73	1건 1점
117	류청신신도비(柳淸臣神道碑) 우	34.5×155	1건 1점
118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 최라	45.9×138.6	1건 1점
119	시인김부용묘표(詩人金芙蓉墓碑)	66.5×124.5	1건 1점
120	원산군원황묘갈(原山君元湏墓碣) 앞·뒤·옆	50.6×107 외	1건 2점
121	도원동석비(桃源洞石碑)	69.5×53.3	1건 1점
122	낙수암오언절구(落水岩五言絕句)	70.5×100	1건 1점
123	류청신신도비(柳淸臣神道碑) 앞	70.5×135.7	1건 1점
124	홍낙원묘표(洪樂源墓表)	69.5×133.5	1건 1점
125	홍대용묘표(洪良浩墓表)	69.5×149.2	1건 1점
126	하마비(下馬碑) 음기	70×80	1건 1점
127	김후선정비(金候善政碑)	53.7×105.3	1건 1점
128	봉선홍경사비갈문(奉先弘慶寺碑碣文)	110.5×66	1건 1점
129	김세렴신도비(金世濂神道碑) 1·2면	56.8×120.7 외	1건 3점

번호	탑 본 명	크기	수량
130	구암(龜巖) 앞, 뒤	23×18 외	1건 2점
131	홍대용묘표(洪大容墓表) 음기	69×123.6	1건 1점
132	복구정(伏龜亭)	94.1×81	1건 1점
133	목천읍사무소(木川邑事務所)앞 비석	70.5×103	1건 1점
134	관찰사남공일우영세불망비(觀察使南公一祐泳世不忘碑)	70.5×103	1건 1점
135	목천읍사무소(木川邑事務所)앞 비석 2	70×128.7	1건 1점
136	기미독립운동기념비(己未獨立運動紀念碑) 앞·뒤·옆	52×128.2 외	1건 3점
137	통훈대부김내묘표(通訓大夫金珠墓表)	56.7×123	1건 1점
138	권농정(勸農亭)	45×88.4	1건 1점
139	독립투쟁의사광복회원기념비(獨立鬪爭義士光復會員記念碑)	41.5×162	1건 1점
140	팔부중상(八部衆像)	64.5×110	1건 1점
141	팔부중상(八部衆像)	44×307	1건 1점
142	목천읍사무소(木川邑事務所)앞 비석	70×101.2	1건 1점
143	시인김부용묘표(詩人金芙蓉墓碑) 음기	67×124.4	1건 1점
144	낙수암명(落水岩銘)	218×70.5	1건 1점
145	석조광배(石造光背)	69×142	1건 8점
146	가정□년명(嘉靖□年銘)	55.7×98.7	1건 1점
147	용봉사입구마애불조상기(龍鳳寺入口磨崖佛造像記)	63.5×122.5	1건 1점
148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67×127.4	1건 1점
149	대평리사지 평기와 탑본	-	66점
150	홍경사지 평기와 탑본	-	252점
151	천안불적 조사 탑본	-	76점
152	기타 탑본	-	130점
합 계			152건 694점

대여/열람

유물 대여

번호	유물명칭	대여기관	대여기간	전시명	전시
1	고배형토기 1점	국립중앙박물관	2017.01.01 ~ 12.31	상설전시	신석기실
2	직선문평기와 등 25건34점	이천시립박물관	2017.01.01 ~ 12.31	상설전시	역사문화실
3	목제기러기, 운혜, 목화, 덕온공주 자라춤치 노리개 등	수원전통문화관	2017.03.29 ~ 04.27/ 2017.09.20 ~ 10.19	해질녘 어느 혼례날	
4	고이댕기, 굴레 2점	경운박물관	2017.04.06 ~ 06.10	017년 상반기 특별전 <금상첨화>	
5	함지박, 목제기, 배넛저고리 등 6점, 연암집 이미지 등	실학박물관	2017.04.13 ~ 08.29	여성 실학과 통하다	
6	문서함	루이비통	2017.05.25 ~ 09.04	루이비통-비행하라, 향해하라, 여행하라	
7	백사모 등 3건 3점	천안박물관	2017.06.14 ~ 08.15	K-museums 공동기획전 『모자, 품격의 완성』	

번호	유물명칭	대여기관	대여기간	전시명	전시
8	악기 여, 동판악보 등 4건 4점	경기도박물관	2017.07.10 ~ 10.31	<경기 옛 이야기> 특별전	
9	아동용 적삼 1건 1점	국립무형유산원	2017.08.01 ~ 09.24	<한국과 일본의 인류무형유산, 모시짜기>	
10	진전사지 출토 암막새 등 4건 4점	국립광주박물관	2017.08.15 ~ 10.17	2017년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	

이미지 대여

번호	명칭 및 수량	기관	대여일	내용
1	덕온공주 유물 분지와 연지첩 연지곤지 도장, 빗솔	코리아중앙데일리	2017.01.09	Ancient makeup used by royals to make faces shine (2017.1.16.)
2	활옷(조선 1680)	도서출판 다운샘	2017.01.10	조선지역, 『궁동불기』
3	덕온공주유물(중요민속자료 제212호) 일괄	KBS	2017.01.31	1TV <TV쇼 진품명품>
4	누비바지, 당의 등 10점	도서출판 다운샘	2018.02.06	조선자 역, 『궁동불기』
5	줄수재문집, 연상각집	실학박물관	2017.03.17	실학교양총서
6	답호, 방령, 솜배자 3점	재단법인 아름지기	2017.06.08	2017 아름지기 Asian Art Museum(SF) 해외전시 "Couture Korea 우리옷, 한복"
7	광해군비 초록색 장저고리 등 5점	도서출판 민속원	2017.06.14	박가영, 『조선시대 궁중패션』
8	덕온공주 비녀상자	국립고궁박물관	2017.06.21	특별전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9	배넛저고리 등 총 5점	국립중앙박물관	2017.07.04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10	열하일기	북앤포토	2017.07.14	『용선생만화 한국사』 9권
11	덕온공주 녹원삼, 덕온공주 장신구상자, 자라춤치노리개, 국자 4점	국립고궁박물관	2017.07.03	고문헌국역총서 제6책 『국역 덕온공주가례등록』
12	목민심서	도서출판 가디언	2017.07.19	『다산과 추사 유배를 떠나다』

번호	명칭 및 수량	기관	대여일	내용
13	앵상, 홍의	교원	2017.07.24	『솔루토이 한국사』
14	강릉김씨 관련 복식 4건 5점	대전시립박물관	2017.09.25	특별전 “한국의 명가(은진송씨)”
15	동자포도문치마' 사진 등 30점	국립민속박물관	2017.10.26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의생활 편(2권)』
16	웃판, 옷말주머니	도서출판 다운샘	2017.12.31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유물 열람

번호	명칭 및 수량	기관	열람일	비고
1	분홍단령, 철릭 등 3점	국립무형유산원	2017.01.19	2017년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전시 준비
2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친필본	중앙일보	2017.03.07	소녀는 자못 자색 지녀, 열하일기 원본은 자유분방했다(2017.3.8.)
3	석주선선생님 기초바느질 자료	경운박물관	2017.03.16	연구
4	巫女年中行事節次目錄 총 1점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2017.05.29	연구
5	파평윤씨 동자문단(童子紋緞)	이화여대 의류학과	2017.05.30	연구
6	두령치마 등 4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2017.07.26	연구
7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비 탁본	한겨레건축사 사무소	2017.07.20	여주 신록사내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8	덕온공주 오목누비 저고리 총 2점	부산대학교	2017.09.01	연구
9	강산초집(薑山初集) 2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7.09.29	연구
10	전모 총 1점	개인	2017.11.14	연구개발

■ 대관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 포롱거리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는 2017년도 상반기 전시 '포롱거리다'가 석주선기념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였다. '포롱거리다'는 작은 새가 매우 가볍게 날다라는 우리말이다. 입체 예술을 탐구하는 조소 전공은 전통 입체 조형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현대 예술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기 간 | 2017.06.28(수)~07.04(화)

장 소 | 죽전 석주선기념박물관 1층 로비

참여작가 | 4학년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 3인 등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 한지에 새긴 기록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는 70주년을 기념하는 탁본전시회 '한지에 새긴 기록'을 석주선기념박물관 제5전시실에서 진행하였다. 충주고구려비, 단양신라적성비, 백제사택지적비 등을 비롯하여 한국 고대사와 석조미술사와 관련된 주요 유물 15건의 탁본을 전시하였다. 사학과는 단국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치된 학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올바른 세계관 배양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과 교수 및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학술 답사,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발굴 작업을 통해 전공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

기 간 | 2017.11.01(수)~11.10(금)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고고미술관 제5전시관



● 티브로드 수원방송 / 경기도 골목가이드

촬영일시 | 2017.06.07(수) 오전 10시

촬영내용 | 석주선기념박물관 소개, 안내

방송일시 | 2017.06.30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속 예술 문화 이야기’

촬영일시 | 2017.09.19.(화) 오전 9시

촬영장소 |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관(3, 4전시실)

촬영내용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콘텐츠 우리역사넷 구축사업 중 한국사 속 문화 예술 이야기 동영상 제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복식문화 교육콘텐츠 제작

촬영일시 | 2017.10.13(금) 오후 12시

촬영장소 | 복식 전시실 촬영(통과의례 관련 복식, 출토 복식)

촬영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식문화 강좌, 통과의례 복식 강좌 중 관련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석주선기념 박물관을 탐방하여 소개

■ 2017 관람객 월별 현황

월별	내국인	외국인	단체	계
1월	402	12	45	459
2월	749	2	67	818
3월	457	38	181	676
4월	397	11	509	917
5월	438	23	1,382	1,843
6월	502	22	63	587
7월	311	94	214	619
8월	424	26	101	551
9월	749	86	792	1,627
10월	531	64	262	857
11월	524	28	284	836
12월	257	43	190	490
총계	5,741	449	4,090	10,280



단체관람 주요현황

년월일	단체명	지역	비고
2017.01.06(금)	2016 Design Winter Camp	천안	중국
2017.01.11(수)	경기도 초중등교원단체	경기도	
2017.01.13(토)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2017.02.16(목)	2017학년도 입학식	교내	학부모
2017.02.20(월)	고려대학교 사학과	서울	
2017.03.09(목)	서울사사다패션스쿨	서울	
2017.03.10(금)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필리핀
2017.03.15(수)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베트남
2017.03.17(금)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 용인	
2017.03.23(목)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현장교육)	경기 용인	
2017.03.31(금)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기 용인	
2017.04.05(수)	단국대학교 입학처 캠퍼스투어	경기 용인	
2017.04.07(금)	단국대학교 입학처 캠퍼스투어	경기 용인	
2017.04.12(수)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경기 용인	
2017.04.14(금)	기흥고등학교 동아리	경기 용인	
2017.04.19(수)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 용인	
2017.04.26(수)	단국대학교 사학과(현장교육)	경기 용인	
2017.04.27(목)	맑은동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경기 안산	
"	들차회	경기 용인	
2017.04.28(금)	단국대학교 입학처 캠퍼스투어	경기 용인	
2017.05.01(월)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	경기 용인	
"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경기 용인	
2017.05.02(화)	신봉고등학교	경기 용인	
2017.05.22(월)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 평택	
2017.05.25(목)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경기 용인	
2017.05.25(목)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서울	
2017.05.29(월)	단국대학교 입학처 캠퍼스투어	경기 용인	
2017.06.07(수)	주한중국대사관	서울	중국
2017.06.09(금)	가인돌 인형한복공방	서울	
2017.06.12(월)	배화여자대학교	서울	
2017.06.15(목)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경기 용인	
2017.06.21(수)	전국대학교총장협의회	-	
2017.07.04(화)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대만
"	죽전자연유치원	경기 용인	
2017.07.05(수)	경기도의정회(경기도 문화와역사 학교)	경기	
2017.07.12(수)	단국대학교 국제처 Summer School	국외	외국인
2017.07.13(목)	죽전자연유치원	경기 용인	

년월일	단체명	지역	비고
2017.07.19(수)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베트남
2017.07.26(수)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외국인
2017.07.28(금)	석촌유치원	서울	
2017.07.31.(월) ~ 08.09(수)	용인 죽전고등학교(독립유공자묘역탐방연계)	경기 용인	
2017.08.14(월)	순수어린이집	경기 용인	
2017.08.29(화)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경기 용인	
2017.09.04(월)	유정유치원	경기 용인	
2017.09.05(화)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경기 용인	
2017.09.06(수)	꿈나무유치원	경기 용인	
2017.09.07(목)	하늘숲어린이집	경기 용인	
"	좋은나무성품학교 파워키즈	경기 수원	
2017.09.08(금)	유정유치원	경기 용인	
2017.09.15(금)	단국대학교 학군단 후보생	경기 용인	
2017.09.18(월)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인도네시아
2017.09.19(화)	원일유치원	경기 용인	
"	북경복장학원	국외	중국
2017.09.20.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경기 용인	
2019.09.21(목)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용인학	경기 용인	
"	현대어린이집	경기 용인	
2017.09.26(화)	성지유치원	경기 성남	
"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러시아
2017.09.28(목)	매향중학교	경기 광주	
2017.09.29(금)	순수발도르프어린이집	경기 용인	
2017.10.11(수)	현암고등학교	경기 용인	
2017.10.12(목)	좋은나무성품학교 파워키즈	경기 수원	
2017.10.13(금)	대지고등학교	경기 용인	
"	단국대학교 학생처 / PAS 외국인학교	경기	
2017.10.18(수)	죽전고등학교	경기 용인	
2017.10.21(토)	음악대학 수시전형 학부모	-	
2017.10.24(화)	Korea Textile Tour	국외	미국
"	창은유치원	경기 성남	
2017.10.27(금)	포곡고등학교	경기 용인	
2017.10.30(월)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경기 용인	
2017.11.01(수)	국외소재문화재단	서울	외국인
2017.11.07(화)	단국대학교 사학과	경기 용인	
2017.11.08(수)	경기도의정회	경기	
2017.11.16(목)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경기 용인	
2017.12.07(목)	기흥고등학교	경기 용인	
2017.12.14(목)	단국대학교 국제처	국외	말레이시아
2017.12.18(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전남 화순	

■ 주한중국대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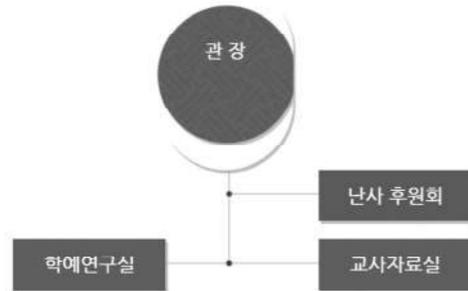
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석주선기념박물관을 방문하여 박경식 관장의 안내로 '경주류씨 류정의 부인 경주 이씨 출토 복식' 특별전과 상설전시를 관람하였다.

방문일 | 2017.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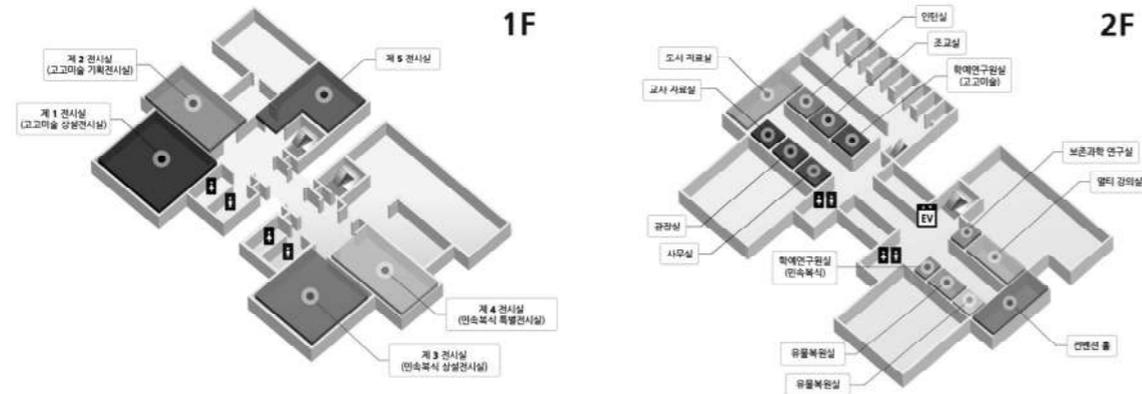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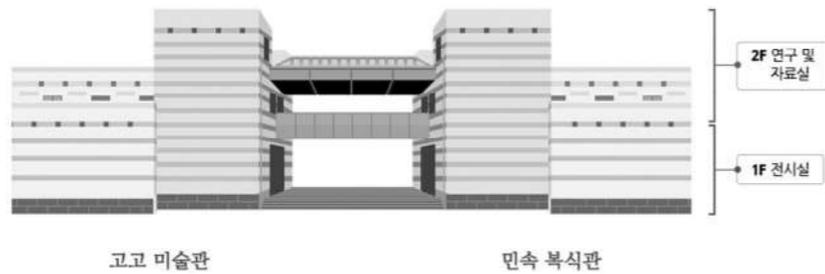


일반 현황

조직



시설



주요연혁

1960년대

- 1967. 11 개교 20주년, 단국대학교 박물관 개관
- 1967. 경상남도 사천 구평리 유적 발굴
- 1968. 경상남도 사천 송지리 고분 발굴
- 1969. 경상남도 사천 소곡리 선사유적 발굴

1970년대

- 1973. 경상북도 경주 인왕동 156호분 발굴
- 1974 ~ 1979.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발굴
- 1975. 난사 석주선 박사 유물 기증
- 1976. 0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 1978. 01 단양지구 조사에서 단양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 발견
- 경기도 시흥 반월지구 선사유적 발굴
- 1979. 04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충주고구려비(국보 제205호) 발견

1980년대

- 1981. 05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개관
- 1983. 충청북도 충주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
- 1985 ~ 1987. 서울 경희궁지 발굴
- 1989. 강원도 정선 덕천리 소골선사유적 발굴
- 오리타 간지[折田幹二]선생, 안중근의사유묵(보물 제569-21호)기증

1990년대

- 1992 ~ 1993. 경기도 양평 병산리 유적 발굴
- 1994. 경기도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내 유적 발굴
- 1994 ~ 1997. 경기도 안성 망이산성 발굴
- 1995 ~ 1998. 경기도 포천 반월산성 발굴
- 1997 ~ 1998. 경기도 이천 설봉산성 발굴
- 1999. 03 중앙박물관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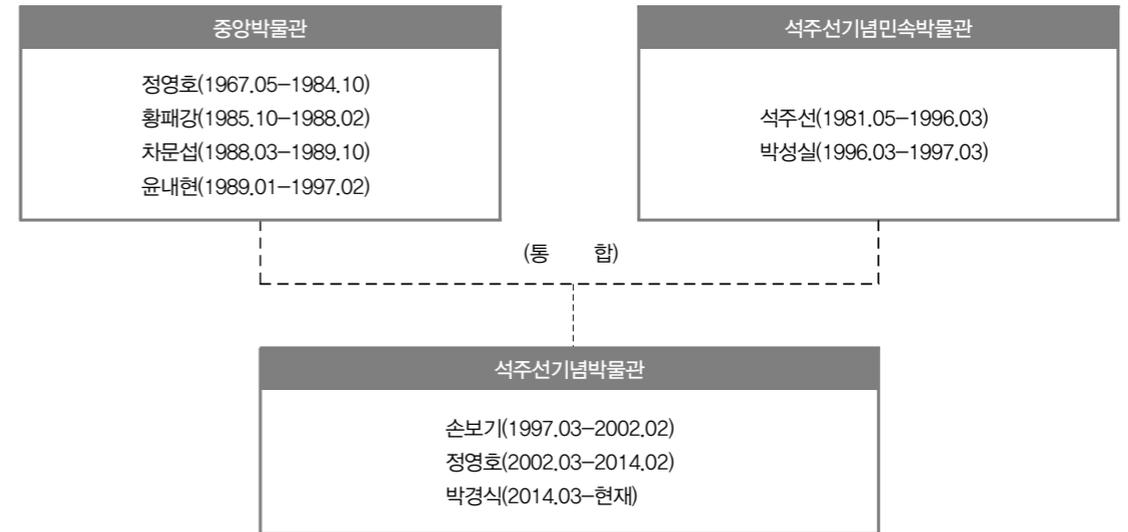
2000년대

- 2001.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부분 장려상 수상(문화관광부)
- 경기도 양주 해평윤씨 묘역에서 남아미라와 복식 수습
- 2004. 10 서울 세계박물관대회(ICOM) 특별전

2010년대

- 2006. 04 난사 석주선 박사 10주기 추모 특별전(서울역사박물관)
- 2006. 06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 10주년 '우리 옷 선보기'(하얏트호텔)
- 2007. 03 AFEC CENTER 초청, MEXICO COLIMA 한국복식전시
- 2008. 08 죽전캠퍼스로 학교 이전
- 2009. 04 죽전캠퍼스 박물관 신축 재개관
- 2009. 11 고고미술 제1회 특별전 '벼루 600選'
- 2010. 05 민속복식 제29회 특별전 '17세기 후반기 사대부家 여인의 옷차림'
- 2011. 05 특별전 '배갯머리에 스민 정성-김대환선생 기증 유물'
- 2011. 11 민속복식 제30회 특별전 '가슴에 새긴 불심'
- 고고미술 제2회 특별전 '天下均平 도량형 600選'
- 2012. 05 민속복식 제31회 특별전 '조선 마지막 공주, 德溫家の 유물'
- 2012. 11 고고미술 제3회 특별전 '皆蓋以瓦 高麗瓦塼'
- 2013. 03 「난파 흥영후 전시실」(난파음악관) 재개관
- 2013. 05 민속복식 제32회 특별전 '영릉 참봉 한준민일가묘 출토유물'
- 2013. 09 고고미술 제4회 특별전 '연민 이가원 선생이 만난 선비들'
- 2014. 03 수장고 증축 및 특별전시실 개관
- 2014. 05 민속복식 제33회 특별전 '보령 양반의 벼슬살이-유당 신태관일가의 유물'
- 2014. 04 2013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표창(경기도지사)
- 2014. 09 고고미술 제5회 특별전 '범정 장형 서거50주년, 단국, 범정에게 길을 묻다'
- 2014. 10 '석주명 박사 유품 14점' 등록문화재 제610호 지정(문화재청)
- 2015. 05 민속복식 제34회 특별전 '분흥단령의 비밀'
- 고고미술 제6회 특별전 '고려행궁 혜음원'
- 2014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전시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 2016. 02 김종숙 여사 '장면 박사 유품 및 일가 유물(401점)' 기증
- 2016. 05 난사 석주선 박사 20주기 왕 복식 착장 시연 '도대체 몇 벌 입은 거니?'
- 민속복식 제35회 특별전 '석주선 박사의 우리옷 나라'
-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왕실 의례복 착장'
- 2016. 『분흥 단령의 비밀』 2016 우수학술도서 선정(학술원)
- 2017. 05 민속복식 제36회 특별전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
- 2017. 06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 '우리는 문화를 입는다(We Wear Culture)'
- 2017. 09 고고미술 제7회 특별전 '경기도 산성과 백제'

박물관 역대 관장



사진으로 보는 박물관 50년 : 1967~2017



구 중앙도서관에 개관한 박물관



중앙박물관 전시실 전경



사천 송지리고분군 발굴 조사 신문기사_1968.08



석주선 박사 기증식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기공식_1976.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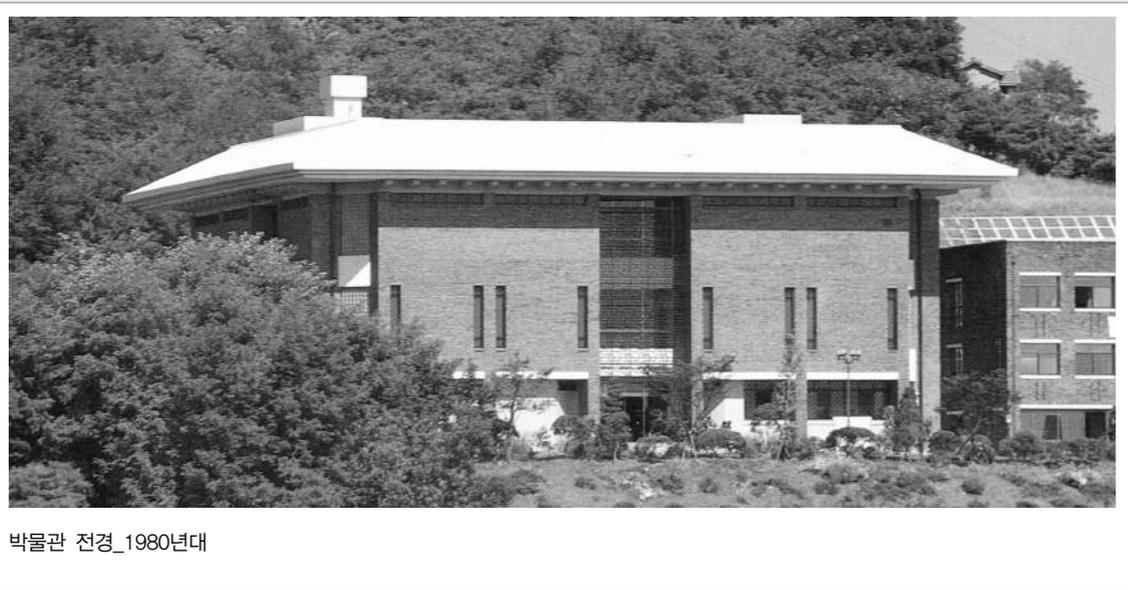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개관식_1985.05



단양 신라 적성비 발견 신문기사_197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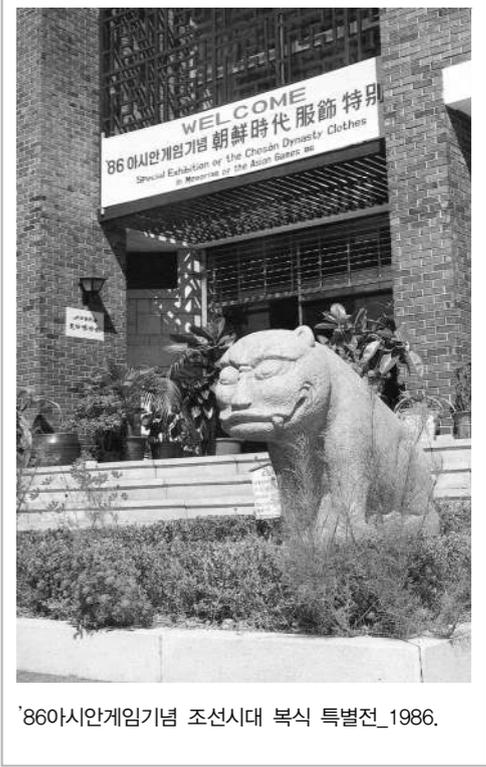
충주고구려비 발견 신문기사_1979.04



박물관 전경_1980년대



박물관 전경_2000년대



'86아시안게임기념 조선시대 복식 특별전_1986.



석주선기념박물관 이전(죽전캠퍼스)_2008년



범정 장형 선생 서거 50주년 특별전 「단국, 범정에게 길을 묻다」_2014.09



석주선 박사 20주기 왕 복식 착장 시연회 「도대체 몇 벌 입은 거니?」_2016.05

유물기증 안내



❶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1967년 개관한 이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1978년 단양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 1979년 충주고구려비(국보 제205호)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발견·조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주선 박사, 장면 박사, 이가원 선생, 홍난파 선생 등이 소장하였던 유품과 유물을 기증을 통해 소중히 관리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토복식 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묘역 출토품의 수습·연구·기증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약1,500여 점의 출토 복식 관련 유물이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학술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복식사 및 각 분야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은 한국문화사 연구에 큰 전환을 가져왔으며 한국 전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분묘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속절차와 유물의 상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록과 수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상의 묘에 대한 이·개장 작업이나 또는 공사나 개발 중에 이루어지는 무연고 묘지의 이장작업시, 발굴 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에 대하여 전문연구자의 적절한 판단과 응급조치가 진행되어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수습하여 관리되어야만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석주선기념박물관은 기증 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합니다.

- 박물관 소장품 등록 후 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
- 중요 자료의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방문화재 등) 지정 신청
-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는 자체 예산으로 보존처리 실시
- 기증 증서 및 감사패 증정
-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 및 전시실 영구 게시
- 전시 도록과 각종 학술도서 무료 우송
- 박물관 특별전 및 각종 행사 우선 초청
- 특별전 개최

기증 안내 및 문의 : 031-8005-2389~2390



② 교사자료실



단국역사관(가칭)이 들어설 70주년기념관

교사자료실은 해방 후 최초의 사립대학인 본교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 연구, 공공봉사에 수반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설립자, 교수, 학생, 행정, 동문의 기록물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이관 기록물, 구성원들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 자체 수집한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다량의 교사기록을 소장하고, 국가기록원 공공표준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단국역사관(가칭) 개관을 앞두고 1947년 개교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국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문서	학교 운영 및 행사와 관련한 종이 기록물
간행물	팸플릿, 초청장, 방명록, 소식지, 요람, 편람, 앨범 등
시청각물	학교의 중요 사건을 기록한 사진, 동영상 등
행정박물류	교표, 교복, 교모, 배지, 직인, 감사패, 현판, 플랜카드, 상장, 기념품
중요기록	그 외 영구보존이 필요한 중요 기록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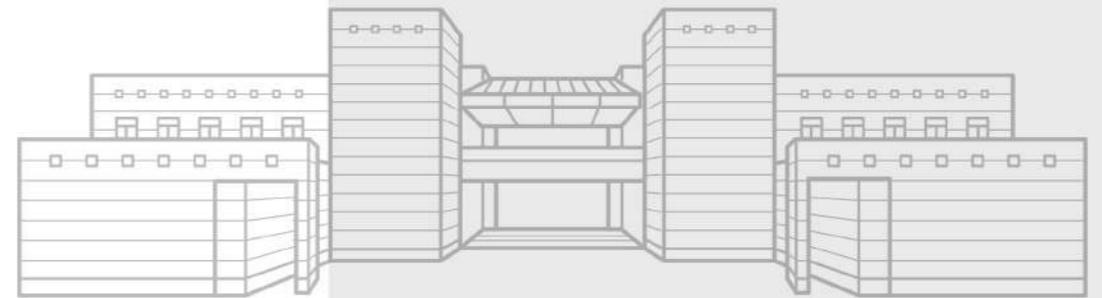
기증안내 및 문의 : 031-8005-2089

한국복식 원고모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과 그와 관련된 한국 문화의 학술적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정기학술지 『韓國服飾』을 1983년 5월 2일부터 매년 발간해 왔으며, 2015년 이후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5월, 12월). 투고규정 및 투고신청서는 본 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dankook.ac.kr> >참여 >서식자료실) 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논문투고신청서(form 1), 투고논문(『한국복식』 투고규정(form 3)참조)
- 투고방법 :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우편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내 한국복식 편집국
 - E-mail : ckafka@dankook.ac.kr(채정민)

※ 『韓國服飾』 학회지 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가 불가하오니 투고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논문투고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제목	국문				
	영문				
Keywords (5개 이내)	국문				
	영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					
<p>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p>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93, Fax : 031)8021-7157, E-mail : ckafka@dankook.ac.kr

博物館紀要

Vol. 33

발행인 장호성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편 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획 : 박경식

총괄 : 조한석

자료 : 기수연, 김희진, 오호석, 이지영

이명은, 전민아, 채정민

교정 : 김선형, 문다현, 이종찬, 이혜빈

Tel. 031) 8005-2389 Fax. 031) 8021-7157

제 작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02) 723-7741~2

